



www.maggun.com

2017. 11 vol. 80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Transition and Consent

· 군산대학교 이연식 교수

· 군산시립도서관 정준기 관장 ·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 군산예도원 임귀성 원장 · 열린카센터 김명석 대표 · 군산의 가을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creativemind.kr

ICM 아이씨엠은,
기업통합이미지메이킹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앞선 생각으로 진보된 비즈니스를!

군산의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이미 아이씨엠과 함께 있습니다



C.I. (기업 아이덴티티) /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 Package (포장디자인)
Editorial (편집디자인) / Products (제품디자인) / Photograph (사진)

Add.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Tel. 063-445-1856 Fax. 063-911-1856



‘폴리테이너(Politainer)’라는 용어가 있다. 정치인(Politician)과 연예인(Entertainer)의 합성어로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하는 연예인을 일컫는 말인데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김제동, 김여진, 김미화 등을 꼽는다. 그 김제동에게 어느 보수 정치인이 일갈했다. “코미디나 할 것이지 돼먹지 않게 정치에는 왜 관여하느냐”고 그러자 김제동의 대꾸, “당신들이 코미디를 그만두면 나도 정치를 그만 두겠다”. 사실 요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코미디도 그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지난 10여년 민주주의를 짓밟는 온갖 작태로 국민을 편 가르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적반하장도 유분수 격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사사건건 국민의 절대적 지지위에 출범한 민주정부의 발목을 잡고 횡방을 놓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과오를 조작 은폐하면서 역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드러난 아비함과 무능, 탐욕, 부패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조금만 더 지속됐더라면 얼마나 나라가 더 엉망이 되었을까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촛불 시위를 나라를 검증하고 다시 바로 세우는 전화위복의 일대 혁명으로 명명하고 있다. 세월호 조작 은폐, 박근혜의 막가파식 재판 거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게임을 놓고 벌이는 불쌍사나운 사생결단식 집안싸움, 해도 너무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당시 국정원 고위간부들과 현직 검사장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권력에 대한 맹종이 얼마나 부질없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짓인지 새삼 반문교사가 되고 있다. 국정원에서 31년간 봉직했다가 댓글 공작 등 혐의로 최근 구속된 유 모 전(前) 심리전단장은 구속 직전 원세훈 원장이 부임하고나서 법을 지키며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고 했다면서 원 원장이 국가의 정보기관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A4용지 40매 분량으로 폭로한 글을 남겨 화제다. 그에 의하면 원 원장은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거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복무했던 인사들을 종북 좌파로 몰고 응징하는 한편 민간댓글 부대와 보수우호세력들을 육성하느라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모자라 자기 수하 직원들마저 감시했고 이로써 강제퇴직, 강등, 좌천은 예사고 심지어 투병에 시달리거나 자살한 직원도 여럿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정일 체제보다 원세훈 체제가 훨씬 더 철저하고 잔혹하다는 공포분위기가 감돌았다는 것이다. 헌법기관의 수장임에도 헌법을 짓밟는 첨병이 되어 법과 본분을 지키려는 양심적 직원들까

지 감시, 탄압했던 것이 오늘날 스스로를 옹죄는 자승자박이 되고 말았으니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듯 불법한 권력은 10년을 못하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는 누구나 다 아는 진리를 어찌 그들이 몰랐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위정자들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마다 본연의 위치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멸사봉공의 자세로 돌아가야 될 일이다. 코미디는 코미디언들에게 맡기고 말이다.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ay0810@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jay0810@hanmail.net Fax_ (063) 911-1856

협찬업체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063-464-2005~7_ 숙박권

오죽 063-464-5625_ 식사권

하이트진로 063-453-5111_ 맥주

미즈커피 063-446-2867_ 음료권

바나나팩토리 070-4274-8839_음료권

* 군산 하이트 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를 받고 싶은 구독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미성년자 불가)하시고, 매거진군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이민아	김아름	송병진	장혜원	신정원
박정은	김한나	이성화	고영옥	양소영
이진우	박찬경	정재은	최유진	김상호



GO TO THE
KUNSAN

Now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같이 나는 70년,
가치 더할 100년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교 중 전국유일 PRIME 사업 선정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전국유일 4개 분야 최우수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5년 연속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배포처

매거진군산은 매달 초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고우당커피숍 (월명동) 063-443-1042
- 골드복권방 (중앙로) 063-445-1212
- 군산CC (옥서면) 063-472-3355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동) 063-443-8283
- 군산시립도서관 (수송동) 063-462-2241
- 던킨도너츠 (중앙로) 063-443-7887
- 미다원 (영화동) 063-462-2132
- 산타로사 (은파유원지) 063-462-9062
- 신포우리만두 (장미동) 063-445-0389
- 아리올 웨딩 (조촌동) 063-453-3200
- 오죽일식 (나운동) 063-464-5625
- 좋은사람좋은치과 (수송동) 063-466-2875
- 파라디소페르두또 (은파유원지) 063-471-8525
- 한길문고 (나운동) 063-463-3109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 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_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ay081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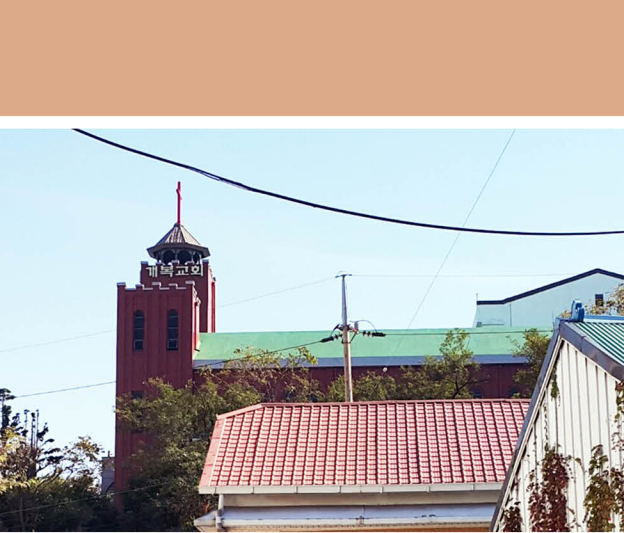
Vol. 80 | 2017.11



발행인·편집장	이진우	jay0810@hanmail.net
디 자 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진현태	gkfp3456@naver.com
주 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시 민 기 자	조종안	chongani@hanmail.net
상 임 고 문	이희찬	lhc-good@hanmail.net
시 민 기 자	배지영	okbjy@hanmail.net
시 민 기 자	이생곤	grandlee@kmni.co.kr
시 민 기 자	심권택	sys2091@daum.net
컬 럼 니 스트	은승조	gsforum@hanmail.net
컬 럼 니 스트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번호_ 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개복동

6070년대 남도극장

영화 한 편에 시름 달래려

시민들 줄 잇던 거리

홍등가

취객들 발걸음 사라진 곳

갤러리 안에서

어느 무명화가의 그림 속 피에로가

창밖으로 미소를 보내고

일백 이십 사년

복음의 빛 밝혀온 개복교회

성도들 기도 소리

초겨울 어둠을 밝힌다.

*남도극장: 국도극장 (우일극장) 6070년대 명칭

최 윤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교수

“ 이제 대학은 ”
변화를 선도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이연식 교수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이연식 교수(60)와의 만남은 교정의 잎새가 붉게 물들어가는 10월 어느 날 디지털정보관 내 그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180cm의 흰철한 키에 차분한 중저음의 목소리, 간혹 보여주는 밝은 웃음은 처음 대하는 사람임에도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한다. 전주가 고향인 그는 86년도 군 산대에 첫 발령 받은 이후 32년째 근속 중인 중견교수로 오는 12월 총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군산이 고향이신가요?

전주가 고향입니다. 신흥고 졸업 후 수도권 대학에도 도전했지만 부친께서는 오로지 국립대만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초로 전남대에 전자계산학과가 개설되었다는 것을 알고 전산, IT를 전공하고 싶어 전남대를 지원했는데 전자계산학과로는 1회 입학생으로서 석사까지 마치고 박사 학위는 전북대에서 취득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웠고요.

당시만 해도 국내 컴퓨터 환경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극히 초보상태 아니었나요? 선견지명이 있으셨나 보군요.

초창기라서 기계 환경 등 전반적 기반이 취약했고 그래서 당시에는 문서작업이나 간단한 프로그래밍 정도가 주된 공부였지요. 하지만 90년대 들어 인터넷 보급과 동시에 컴퓨터의 문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확산됨으로써 이제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컴퓨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예측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 하는데 어떤 개념인가요?

정보화로 인한 3차 산업혁명시대에서 'soft power'와 '지능' 중심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사회로의 전환은 본격적으로 2020년경에 시작될 전망이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등의 주요 기반 기술을 통한 자본보다는 재능이 생산성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뇌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과 사회의 융합, 초연결이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그 기술의 편리성 때문에 세상의 빠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기술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 인간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여야 할 텐데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기술들에 대한 기술확산점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미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으로 일본과 EU, 우리나라, 중국 순입니다. 주요 미래 기술들에 대한 기술확산점을 미국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약 5~7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측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은 항상 사회 변화의 동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개발단계에 있을 때부터 그 기술의 확산시기를 예측하고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에 대해 미리 고민하여, 사회 수용성과 투자시기를 최적화하고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동반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술 확산에 대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에 따른 대응이나 준비는 불가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전라북도 핵심 도정분야 중 농업분야 관련하여 농업용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를 집중 육성하고자하는데, 이와 관련된 지능형 로봇 기술은 미국은 2024년, 국내는 2028년경에 사회적으로 확산(일반 농가보급률 8%~16%)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이러한 기술확산점 도달 이후 소셜 로봇, 인간 협업 로봇, 헬스케어 및 가사 로봇 단계로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예측을 기반으로, 지능형 로봇이 사회적으로 확산 되려면 우선적으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협력 활성화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기술 개발 부분은 혁신형 인공지능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 통합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며, 인력양성 관련하여 기본기와 전문지식을 갖춘 통섭형 인력 양성, 창의·융합·통합 역량 향상을 위한 학문적 경계를 파괴하는 다학제간 융합교육 및 연구 과정 운영, 취업을 위한 고용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수요처와 개발자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기술 선도 국가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로봇기술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일을 대체하기도 하고, 알파고 같은 경우 바둑만큼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세계의 바둑 강자들을 모두 제압함으로써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컴퓨터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는 차이는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무한한 기억용량을 지닌 인간은 망각기능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에 뒤쳐질 수 있지만, '감정 지능'이나 '정신적 균형 감각' 등은 아직은 인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뇌의 잠재력 또한 알 수 없지요.

이야기를 바꿔 올 12월 치러지는 군산대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신 걸로 아는데 출마를 결심하신 동기가 있나요.

제가 군산대학교에 32년째 근무 중인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대학 뿐 아니라 사회에도 어려운 시기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참된 소통을 기반으로 비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산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서해안을 넘어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의 중핵 대학인 우리 군산대학교가 심기일전함으로써 환경변화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대학의 업그레이드는 필연적으로서 이러한 시대 정신을 직시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소통, 배려, 그리고 공감 이 절대적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꿈을 가지면 큰 벽이 나타납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말인데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 고 합니다. 비록 힘이 들겠지만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여 벽을 쓰러뜨리면 그것이 다른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문화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겨내고 새로운 이익을 넓혀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다짐으로, 소통, 비전, 가치관, 신뢰, 용기, 결단성, 정직을 공유하는 신명나는 대학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가나 사회, 개인을 막론하고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하다가는 낙오되거나 도태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잖습니까. 따라서 변화를 위한 모두의 공감대를 도출해내고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대학의 발전적 변화를 앞당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도 있겠지요.

(웃음) 구체적인 공약 관련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을힘을 다하면 이런 대학이 되겠다.’는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이루었을 때 모든 구성원이 웃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생각과 지혜를 모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기 4년의 총장이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변화를 위하여 단기적인 해결 방안에 집착하지 않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을 도외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가장 험센 개구리가 다음 세대에서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성공은 그만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 구성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학 발전에 함께 노력을 경주할 준비가 되어있고, 저는 우리 구성원들을 믿습니다. 우리 구성원의 현명한 선택만이 우리 대학의 앞날을 만들어가고 지켜갈 것입니다. 저는 성(城)을 쌓기보다는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는 인도자가 되고, 본받을 전통과 명예가 있는 자부심 충만한 군산대학교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구체적 공약을 물어보셨는데 다른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분야의 슬로건만 말씀드리면, 진정한 화합과 상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행정, 모두가 공감하고 신명나는 명품 교육, 미래를 주도하고 이끄는 지속가능 연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 따뜻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명품 복지,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산학 및 대외협력 등입니다.



이연식 교수

학력 및 경력

1978~1982 전남대학교 전자계산학과 / 전산학 이학사
 1982~1984 전남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 전산학 이학석사
 1989~1994 전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 전산응용 공학박사
 1986~현재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 교수
 2012~2014 군산대학교 학생처 / 처장
 2012~2014 군산대학교 입학관리본부 / 본부장
 2004~2005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 교환교수
 1999~2001 군산대학교 전자계산소 / 소장
 1997~1998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 / 교환교수
 1995~1997 군산대학교 교무처 / 부처장
 1994~1995 군산대학교 전자계산소 / 소장
 1984~1985 예비역 사관(군복무) / 예비역 장교
 1986~현재 한국정보과학회 / 종신회원
 1990~현재 한국정보처리학회 / 종신회원
 1996~현재 지식 및 데이터 공학회 / 상임이사(부회장)
 2012~현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상임이사
 2009~2013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상임이사
 1994~2010 한국멀티미디어학회 / 상임이사

2013~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 / 위원
 2013~2015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 / 운영위원
 2014 산업기술혁신평가단 / 위원
 2014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위원회 / 위원
 2014 특구기술사업화사업단 / 위원
 2011~현재 한국연구재단 / 평가위원
 2012~2014 군산대학교발전재단 / 임원

군산대학교
 이연식 교수 연구실
 군산시 대학로558 디지털정보관 3층308호
 T. 063) 469-4553

관련하여 세부적 공약들도 준비하고 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과 꼭 하고 싶은 일을 바르게 결단하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지역에서도 지켜봐 주시고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는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영역이나 민간 기업을 막론하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우월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안주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적 변화가 절대적이라는 것과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천명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준비하신 공약이 이행됨으로써 군산대가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시는 경영 철학과 총장상은 무엇인지요.

준비하고 있는 공약들은 제가 평소 지니고 있던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면, 소통 기반의 지혜롭고 신중한 의사결정과 투명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영 시스템을 통한 Smart University 구축, 안정적 교육과 연구 기반, 능동적이며 일관된 정책 실현을 통한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Stable University 구축, 강점 강화와 약점 보완을 통한 대학의 위상 제고와 지속 가능한 대학 발전을 위한 대학 성장 동력과 잠재역량을 발굴하는 Sustainable University 구축,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대학과 지역사회가 가진 자산을 활용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Open university 구축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되고자하는 총장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학 총장의 리더십은 다른 조직과 달리 수평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조직을 이끌 것이 요구되므로,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문제점을 극복하여 다수의 합의점에 기초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나친 개혁이나 재정의 충족이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귀 기울이는 낮은 자세로 임하며, 열린 마음으로, 능동적이고, 진실하며, 지성적이며, 희생하는 자세로 비전을 실천하는 集思廣益의 총장, 그것이 제 올곧은 신념이며 각오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꼭 뜻하는 바를 이루셔서 군산대학교가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로 발돋움하는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유일의 월간지로서 군산시민의 친구이자 자부심이기도 한 매거진군산, 나날이 더 큰 발전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책도 읽고,
문화도 즐기고

군산시립도서관

정준기 관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시립도서관의 연혁 및 운영 현황

1990년 수송동 지금의 위치에 신축 개관한 시립도서관(본관)은 대지면적 1,450m², 건물면적(지하1층, 지상6층) 5,500m²의 규모에 약 15만권의 장서를 갖추고(분관인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채만식도서관 및 지역별 작은도서관까지 전체 약 47만권) 시민들의 사랑을 더해가고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그저 조용히 책을 읽고 대여하는 기능으로서의 전통적 도서관에서 최근의 문화공간으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기까지는 올해 2월 부임한 정준기 관장의 노력이 컸다. 정 관장은 군산시 문화예술과 및 투자지원과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도서관이 꼭 책만이 중심이 아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 믿고 변화에 주력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서히 결실을 거두고 있다. 금년 4월부터 36개월 미만 아이들 대상으로 책을 지금, 부모들까지 함께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북스타트사업만해도 신청자가 800명을 넘을 정도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립도서관의 등록 회원은 13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늘푸른도서관(나운동 구 보건소 건물)까지 합하여 일일 평균 3,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설립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립 13개소(직영 10, 위탁 3), 사립 2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토록 도서관의 규모가 확장되고 이용자가 점증함에 따라 운영 예산 증가는 당연해 보이는데 시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올해만 해도 정준기 관장이 앞장서 관내 15개 기관으로부터 도서 기증 등 약 2천만 원 상당의 후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 관장은 문화예술과장 재직 시 지금은 시간여행축제로 명칭이 바뀐 1930축제사업의 정부 예산을 따낼 만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일에는 언제나 의욕과 열정이 넘쳤고 도서관의 변모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내부는 카페 형의 여유로운 휴게공간으로 꾸며 1층의 경우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지하 새만금홀은 인문학을 비롯한 각종 강의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장소로 운영되는 것도 모두 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군산시립도서관의 선도적 콘텐츠 중 하나는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북 최초로 무인발급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 이것이 효과를 거두면서 전주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우수한 도서관을 견학, 벤치마킹을 하는 등 트렌드 변화에 주력한 것이 오늘의 도서관으로 거듭나게 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 관장 이하 관련 부서의 계장, 직원들 모두가 변화를 공감하고 열정과 협력으로 이뤄낸 결과라 할만하다. 또한 디지털자료실에서는 시민영화감상실도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아동 대상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10월 중 상영한 영화로는 '인어공주' '매직브러시' '아기배달부 스토크', 자전거 탄 소년 등으로 아이를 둔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F

문화교실



아동자료실



유아자료실



자유열람실



2F

일반실



일반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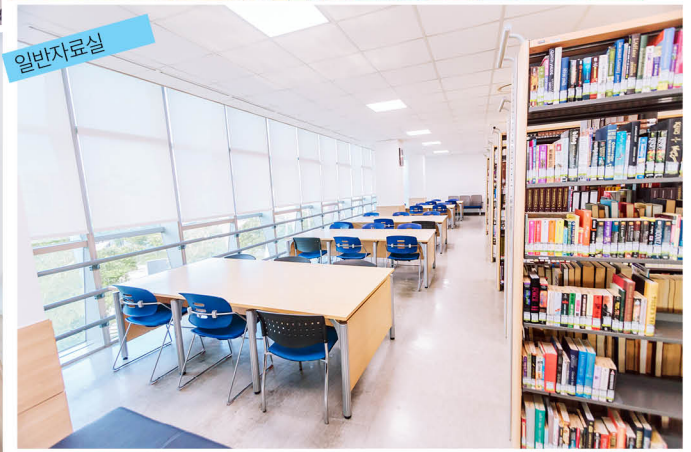


3F

남자열람실



일반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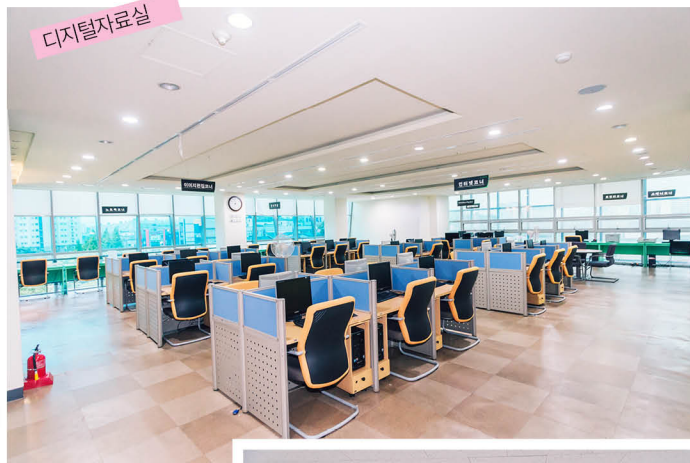


4F

노트북전용실



디지털자료실



여자 열람실



전산교육장



5F

교양문화실



성인열람실



식당





2. 북스타트사업 : 558명 참여

- * 사업기간 : 2017. 2. 23~ 7. 20(5개월간)
- * 대 상 : 관내 3~36개월 영아 및 부모, 4~5세 유아
- * 장 소 : 늘푸른도서관
- * 사업내용 : 북스타트 자원활동가에 대한 소양교육(다목적강당/35명), 관내 3~36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자원활동가 대면을 통한 독서의 의미를 일깨우고 책꾸러미 무료배부 (유아자료실/279명), 19~36개월, 4~5세 유아 대상 자원활동가중심 책놀이활동(문화누리교실/244명)

책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진흥사업

- * 독서문화프로그램 : 22개 프로그램운영(2017.1~8/7,913명)
- 본관 : 겨울·여름 독서교실(초등생/248명), 부모교육 강연(성인/132명), 독서문화한마당(시민/3,300명), 문화가 있는 날(초등/217명), 한여름밤의 인문학(시민/164명)
- 늘푸른 : 겨울·여름 독서교실(초등생/200명), 도서관 주간(시민/1,054명), 북스타트(유아/558명), 아이사랑특강(초등/255명), 문화가 있는 날(성인/814명)
- 설림 : 여름·겨울 독서교실(초등169명), 도서관 주간(시민/110명), 문화가 있는 날(초등/121명), 가정의 달(초등/20명), 야간체험행사(시민/41명),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초등/145명)
- 임피작은도서관 : 겨울·여름 독서교실(초등/185명), 행복한 가정 특강(시민/120명), 문화가 있는 날(유아/60명)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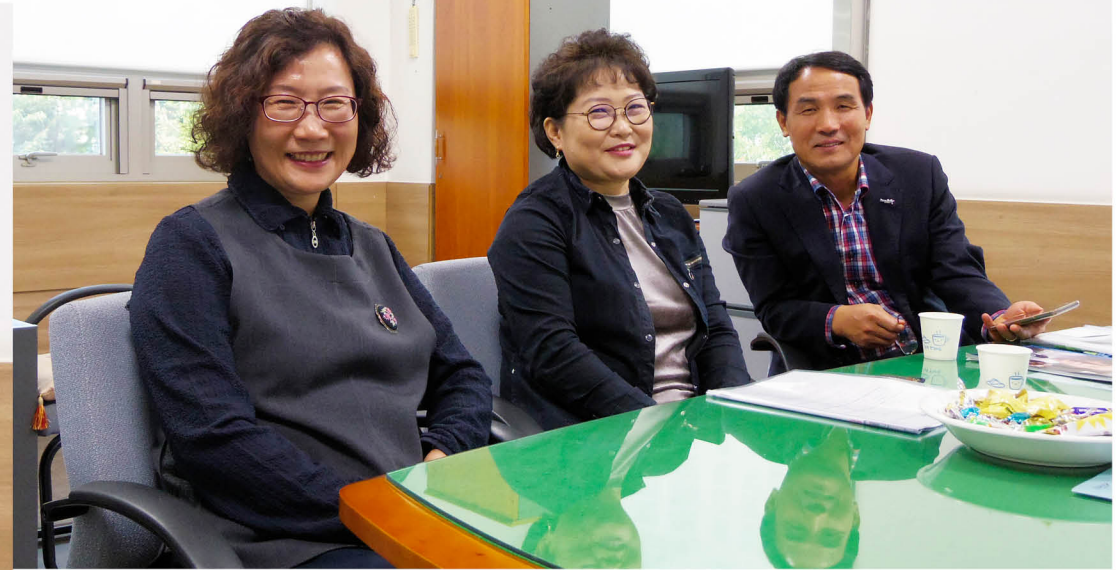
도서관 본래의 주 기능으로서 시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독서문화가 깃들 수 있도록 2017년도 1월~8월까지의 의욕적 사업추진실적을 소개하면 문화관련 170강좌(15,013명), 독서회 18개(3,917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이를 도서관별로 나누면 본관에서의 방학특강18개(679명), 시민문화강좌8개(1,547명), 독서회8개(1,947명)를 비롯하여 늘푸른도서관의 방학특강15개(656명), 시민문화강좌6개(568명), 독서회8개(1808명), 설림도서관의 방학특강8개(328명), 시민문화강좌2개(208명), 독서회2개(169명), 임피작은도서관의 방학특강61개(2,973명), 문화강좌52개(8,054명)등을 들 수 있으며 세부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부추진내용

1. 독서문화한마당 ; 3,300명 참여

- * 4.13 채인선 작가 강연회 : 우리아이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교양문화실/60명)
- * 4.15 멀티미디어 인형뮤지컬 “도서관 생쥐” (새만금 드림홀/170명)
- * 4.15 책놀이터 체험부스 : 책갈피, 감사카드, 곤충목걸이 만들기, 포토존, 책분류, 퍼즐맞추기, 독서능력진단평가 (수송근린공원/400명)
- 책나눔 도서교환장터 : 시민 1인1책 도서교환, 과월호 잡지배부(도서관 정문/500명)
- * 4.12~18 원화 및 수강생 작품 전시회 : 원화 ‘슈퍼 거북’
- 수강생 작품 전시 : 꽃그림 세밀화, 캘리그래피 (자료실/800명)
- 자료실 연계 : 장기연체자 구제(도서관납시 회원정보 수정)
- 도서대출 권수 두 배로 확대 : 3권→ 6권(자료실/1,370명)





우에서 좌로
정준기 관장
정숙경 도서관홍계장
김연실 관리계장



인터뷰 말미 정준기 관장에게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하자 앞으로는 어린이가 이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 및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여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을 들려준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친화형 도서관이 되도록 직원 모두가 봉사의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면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의지가 식지 않는 한 시립도서관이 앞으로도 시민친화형 다양한 선진 프로그램을 도입, 대중의 책읽기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문화의 저변이 넓어지며 그를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가 아닌가 한다.



“박근혜 구속 연기는 당연히, MB에게도 책임 있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지만,
신중한 자세 필요해”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김관영 국민의당(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13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법률상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음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가권력인 국정원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선에 일조한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MB 시절 국정원을 비롯해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 대표로 탄핵안을 제안 설명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날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인용 발표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김 의원은 ‘귀를 기울여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 ‘이청득심’을 인용하며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야한다고 말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것 등을 주문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개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형성 등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진행해 가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며 “새겨들을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자유한국당 의견도 묻고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야 정당에 조언하는
김관영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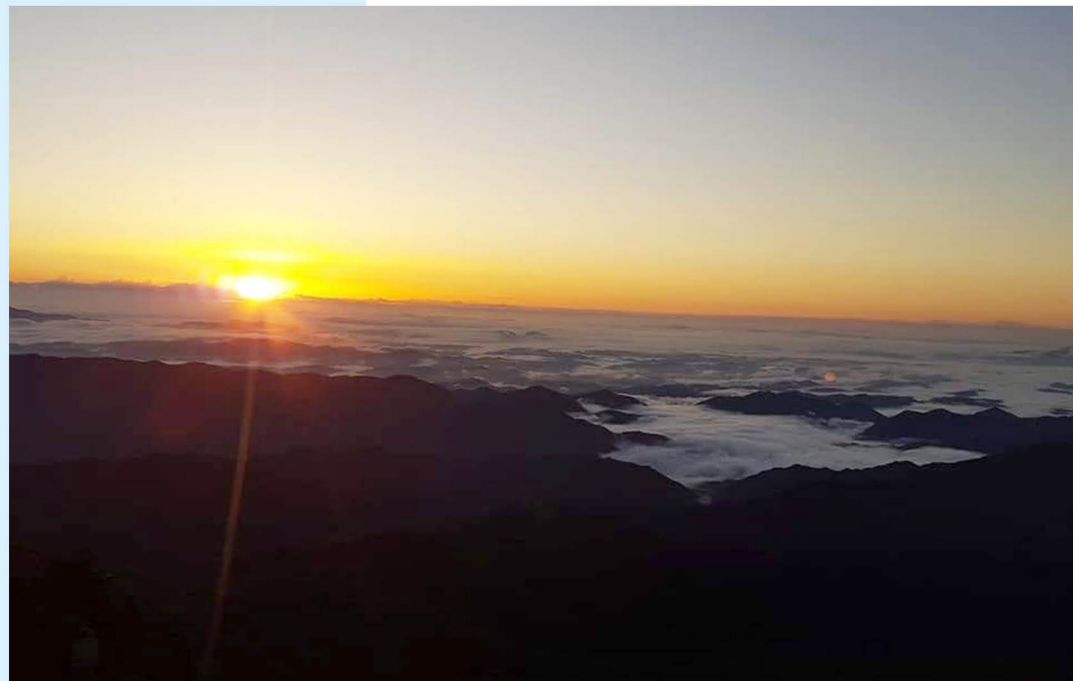


지난 14일 오후, 군산시 나운동 김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올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 어떻게 보냈나?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독(dock) 폐쇄와 한국 GM 철수설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추석 전에는 시내 재래시장과 경로당, 보육원 등의 복지시설을 돌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얘기도 듣고 위로도 드렸다.

추석 후에는 생애 처음으로 막내아들과 지리산을 종주했다. 내가 의원 베지를 처음 달았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던 막내가 중학교 2년생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2박 3일 동안 많은 얘기도 나누는 등 서로를 이해해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왕봉 일출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천왕봉 일출

박근혜의 불행은 ‘아집’과 ‘불통’에서 비롯됐다

2015년 인터뷰 때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위기라며 2~3년 후가 더 걱정된다고 했다. 우려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파면됐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드나?

“박근혜의 불행은 ‘아집’과 ‘불통’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이 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기 사람만 챙기고 정책결정도 독단적이고, 그 모든 것들이 꼬아 터졌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권력 분점을 위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개헌특위 소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큰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꼭 개헌을 이루어 내고자 한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제안 설명을 했다. 전후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작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처음 보도한 이후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거워졌다. 그 후 박 전 대통령의 연이은 사과발표와 함께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이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촛불 집회가 시작됐고, 국회에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당시 국회의원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뿌듯함을 느낀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3차례 변론준비절차와 17회 변론(총 84시간 50분)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이 인용되었다. 3월 10일,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인용 발표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막내아들과 지리산 천왕봉에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제안 설명하는 김관영 의원(16.12.9)

“잘못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MB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국가권력인 국정원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것이 가장 큰 책임이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러한 남용을 하지 않았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잘못이 있으면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자원외교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때 관련 부처에서는 핵심적인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증인요청도 당시 여당(지금의 한국당)과 청와대가 막아서는 것을 보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었다. 그래서 안 된다. 적폐청산, 그것이 문제인 정부 탄생 이유 아니겠나.”

MB 시절 국정원이 주도한 대국민 공작들이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고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잘못된 역사는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라도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고 비리와 부정, 기회주의가 청산된다.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동정론 있을 수 있으나 희망과 현실은 구분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법률위배 사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줬다. 법률상으로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경제적 동일체인 최순실 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재판부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또 여전히 지지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구속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최순실을 포함한 아래 사람들 잘못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는 동정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동정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최종판단(1,2,3심)까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 단순히 감정적이고 막연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막연한 희망과 엄연한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점수를 준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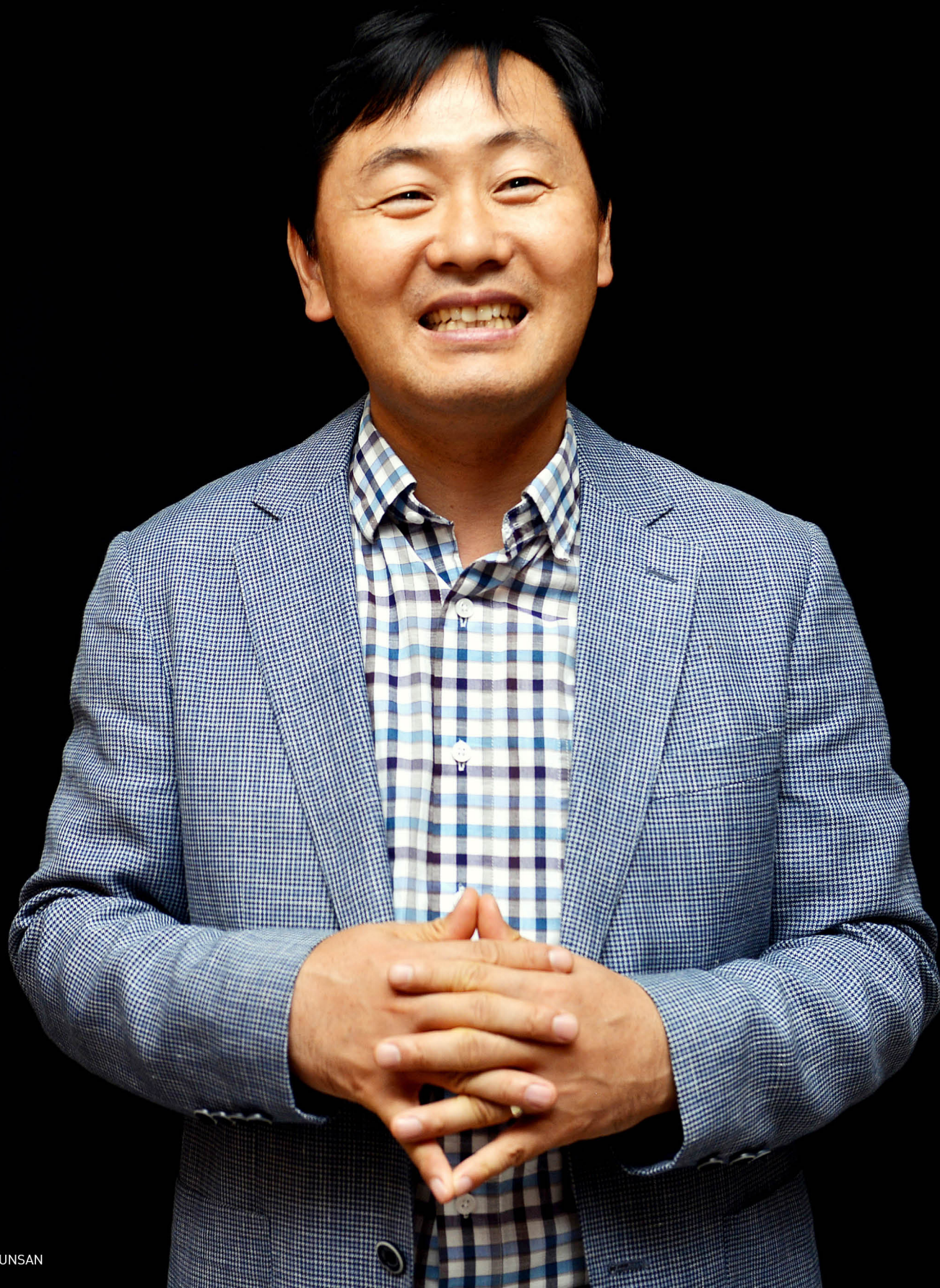
“과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묵묵하게 또 꾸준히 실천해 내는 것이 더 중요 과제다. 그래야 정치보복에 대한 오해도 받지 않고, 정적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점수로 치면 60점 정도 주고 싶다.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실천으로 담보해 내야 한다.”

정부의 재정여력을 고려한 복지정책, 20~30년을 준비하는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정책 등이 아쉽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비와 당장의 북핵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들에 관해서는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바로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형성 등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진행해 가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17.01.25)





야당 의원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인사에 있어서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하고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과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 캠프 출신이나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 채운 코드인사는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민주당도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견도 묻고 경청해야 한다. 거기서도 분명히 새겨들을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다. 귀를 기울여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연정을 하든 정책연대를 하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감싸기에 치우쳐서도 곤란하다. 정치인은 자신의 지지기반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준 고마움보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마지막 질문이다. 여야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역사는 항상 발전하고 진보한다. 우리나라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민주적 방식에 정치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도 놀라고 있다. 일본에서도 격찬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민들에게 “꼭 힘내시라.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다. 태풍이 지나가면 육지에 피해가 발생하지만 바다에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고 한다. 그러한 현상은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는 자연의 이치이자 정치의 이치이기도 하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만을 생각하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

군산에서 열리는 추모제 '혼풀이 춤'이 각각 다른 이유

임귀성 군산예도원 원장

“춤은 천근만근
무겁게 추어야”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전북 군산시 성산면에 자리한 오성산(五聖山·227m) 산정에서는 그 옛날 백제인들과 '오성인'(五聖人)의 호국충절 정신을 기리는 '오성문화제전'이 매년 가을에 열린다.

옛 문헌에 따르면 오성산 일대는 1400여 년 전 당나라군과 백제군 사이에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또한, '오성인 묘' 부근에서 백제 양식의 테머리식 산성이 발견되고, 칼끝처럼 뾰족한 도진봉(刀津峰)에 남아 있는 봉화대 흔적은 이 지역이 백제 시대 금강 하구를 감시하던 군사적 요새였음을 암시한다.





오성산

진혼을 위한 넋풀이, 도살풀이 한마당

백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비단물길 금강(錦江). 그 금강 하류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오성산 산정에서 도살풀이춤 한마당이 펼쳐진다. 진혼을 위한 넋풀이다. 이곳은 사비성(부여)을 향해 진격하는 당나라장수 소정방에게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다섯 노인이 묻힌 곳이다. 이름하여 ‘오성인 묘’다.

가냘픈 손끝과 애절한 몸짓에 발 디딤새가 아스라하다. 자박자박 걷는가 싶더니 긴 수건을 쥔 손끝이 허공을 향해 곡선으로 흩뿌린다. 정중동(靜中動)의 미가 조화를 이룬다. 손끝에서 어깨까지 여섯 관절을 꺾고, 틀고, 당기고, 밀어내고, 잡아채는 곱삭은 춤이다. 호흡이 멈췄는가 싶은 순간 버선코 발끝은 사뿐히 추임새를 놓는다.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흥과 신명, 애절함을 함께 녹여내는 완벽한 춤사위다.

3~4분 지나자 춤꾼은 영매(靈媒)가 된다. 그리고 소망을 빌어 축원하고 해원을 빌어 상생한다. 발끝, 손끝 모든 춤사위에 인간사 희로애락이 담긴다. 나라를 지키다가 숨져간 백제 병사들과 산정에 묻힌 다섯 노인의 혼령을 위로한다. 고혼들에게 인사하면서 떡이랑 과일이랑 많이 들고 가시라고 권한다. 평화와 풍요의 물결이 더 큰 회오리로 일어나길 소원한다.

이날 혼령들과 인간을 매개해준 춤꾼은 임귀성(62) 군산예도원 원장이다. 임 원장은 1999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초대되어 한스럽게 죽은 영혼들을 위로해오고 있다. 그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이면서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이다. 지난 9월에는 전남 신안군에서 개최된 ‘2017 인동초 국악대전’에서 살풀이춤으로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군산의 추모제 및 충혼제

군산에서는 선조들의 충절과 호국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 및 충혼제 행사(5~6개)가 해마다 열린다. 그중 앞서 소개한 ‘오성문화제전’을 비롯해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최호 장군 시민추모제’, 6월에 개최되는 ‘임병찬 선생과 의병 35인 충혼제’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군산문화원 주최로 열린다.

최호(崔湖·1536~1597) 장군은 1574년(선조 7) 무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서북 변경지역을 수호하며 명성을 떨쳤다. 정유재란 때인 1597년(선조 30)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이몽학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우고, 칠천량해전(漆川梁海戰)에서 장렬히 순국하였다.

임병찬(林炳瓚·1851~1916) 선생은 낙안군수를 지낸 항일의병장이다. 1906년 전북 최초 항일구국투쟁인 병오창의(丙午倡義)를 총지휘하였다. 경술국치(1910) 이후 독립의군부 전남 순무대장에 올라 구국 투쟁을 전개하다가 1914년 6월 일경에 체포되어 거문도에 유배되고 단식을 감행하다가 1916년 5월 23일 순절하였다.

추모제마다 소품이 다른 ‘혼풀이 춤’

군산의 추모제 및 충혼제는 국민의례에 이어 봉제 선언(충혼 선언), 신위 봉안, 헌공다례, 초헌례·야헌례·종헌례, 독축 등의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된다. 여기에서 무겁고 딱딱해진 행사장 분위기를 온화

하고 부드럽게 반전시켜주는 순서가 있다. 임귀성 원장의 ‘진혼풀이(혼풀이 춤)’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고이 잠들게 한다는 ‘혼풀이춤’임에도 행사 때마다 춤사위가 다르고 손에 쥔 소품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임 원장은 “최호 장군 추모제 때는 흰 창호지로 만든 지전(종이돈) 다발을 쥐고 추는 지전춤을, 오성문화제전 때는 긴 수건을 이용하는 도살풀이춤을, 임병찬 선생과 의병 충혼제 때는 살풀이춤을 춘다”며 “행사를 주최한 군산문화원 요청으로 춤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개인(임 원장) 영감으로 정해진다”고 부연한다.

임귀성원장 (도살풀이춤)





“충혼제나 추모제는 일반적인 무대공연과 달리 ‘혼 풀이 춤’이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느낌이 옵니다. 영혼들과 영적인 교감 상태에서 아, 이번에는 이 춤을 춰야겠구나. 이번에는 저 춤으로 해야겠구나 하고 영감이 떠오르죠. 마음이 정해지면 구상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우천으로 무대가 야외에서 실내로 변경되거나 연습 중 춤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제가 매년 참여하는 공연 중에는 군산, 특히 혼풀이에 관계된 게 많습니다. 군산은 항구도시여서 그런지 크고 작은 국내외 전쟁, 의병활동, 삼일만세운동, 농민항쟁 등에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분이 많습니다. 한스럽게 죽은 원혼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이유로 실제 생활에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하늘의 영혼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이지요.”



지전춤(좌측) 살풀이춤(가운데) 도살풀이춤(우측)

‘춤은 묵직하게..., 천근만근 무겁게 춰야 한다’

임귀성 원장은 서울 토박이다. 초종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다. 그의 춤 경력은 30년 남짓. 춤은 결혼 후 임이조(1950~2013) 선생에게 처음 배웠다. 1990년대 초 군산으로 발령받은 남편을 따라 왔다가 눌러앉았다. 서울에서 춤을 배워던 임 원장은 이삿짐을 풀기 무섭게 군산국악원을 찾아가 등록한다. 그리고 흥남동에서 국악원을 운영하는 월산 최란수 명창에게 〈흥부가〉 한바탕을 배웠다. 모두 남편의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임 원장은 한국 전통춤의 거목 우봉 이매방(1927~2015) 명인의 애제자이기도 하다. 스승 관련 중앙무대 경험도 풍부하다. 대표적인 공연으로 〈외길인생 우봉 이매방 춤 인생 70년 기념공연〉(2004), 〈우봉 이매방 춤 전수관 기념공연〉(2005), 〈우봉 이매방 팔순 기념공연〉(2006) 〈한국의 명인 명무전〉(2007) 〈외길인생 우봉 이매방 춤 대공연〉(2009) 〈우봉 이매방 전통춤 대공연〉(2010) 등을 꼽는다.

“제가 처음 이매방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군산에서 왔으며 인사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면서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군산 영화동에서 무용연구소를 3년(1951~1953) 정도 했다는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죠. 선생님은 군산비행장(미군기지) 쇼 무대에서 삼고무, 오고무 등을 공연했던 이야기와 군산 제자들(박문자, 김옥순, 양향옥, 채영옥 등)과 첫 발표회를 전남 광주에서 가졌다며 저를 조카처럼 대해주셨지요.

군산에서 왔다고 특별히 애정이 있으셨는지 인사만 하면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하셔서 사모님 방에서 자고 오곤 했지요, 아마 제가 선생님 댁에서 숙식을 가장 많이 한 제자일 겁니다. 2년 전 여름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나흘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빈소를 지켰지요. 선생님은 공연을 앞두고는 회초리(장구채)를 들 정도로 지엄했지만, 인정이 넘치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죠. 집에 오는 제자는 꼭 밥을 챙겨 먹여서 보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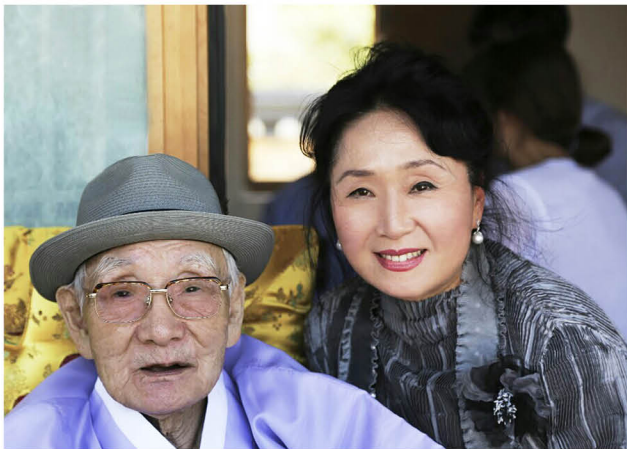
임 원장은 “(이매방) 선생님은 ‘춤은 추는 사람의 몸과 마음과 행동의 짓’이라며 ‘춤은 연륜과 공력이 필요하다. 출수록 맛이 나고 곱삭아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 그러려면 항상 정직하고, 욕심을 버리고 특히 마음이 고와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도 ‘춤은 묵직하게..., 천근만근 무겁게 춰야 한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춤꾼의 길을 열어준 스승을 떠올렸다.



임귀성(지전춤)

대통령상수상사진

스승 이매방 선생님과(2015)





“저희 직장 고수는
저희 ‘임소문’ 듣고
내기도”

‘열린카센터’ 김명석 대표

글!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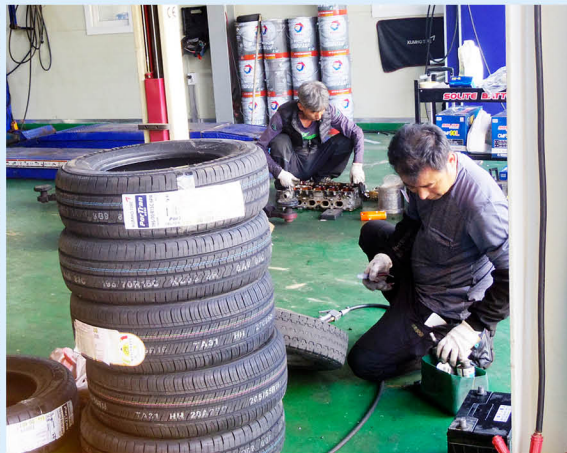
얼마 전 어느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자신의 차가 15년이 넘어 노후 되다보니 몇 가지 주요 부품을 시급히 교체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평소 다니던 카센터를 찾았단다. 받아든 수리비 견적은 수십만 원에 달했다. 그 카센터 사장은 차라리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 조촌동의 열린카센터를 찾아가보라는 조언을 해줬다. 자기가 아는 한 군산에서 제일 양심적 업체라고 했다. 그 지인은 설마 하면서도 열린카센터를 찾아갔다. 큰 도로변임에도 간판이 섯돛 눈에 띄지 않는 열린카센터의 김명석 대표는 그래서 자기 집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다는 말을 들려주며 차를 꼼꼼히 점검하더니 어느 부품을 어떻게 교체해야 된다는 세심한 설명과 함께 제시한 견적은 예전에 다니던 카센터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 지인은 오전에 수리를 맡기고 저녁 무렵 수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고 차를 찾으러 갔다.

김 대표는 타이어 두 개가 너무 마모되어있어 그것도 아예 중고타이어로 교체했다면서도 오히려 처음 제시했던 수리비에서 또 10만원을 빼주었다. 다행히 부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차의 수리는 완벽했다. 그 지인은 수십 년 동안 여러 카센터를 거래해봤지만 열린카센터 같은 양심적 업체는 처음 봤다면서 그 역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사례를 들어 입소문을 전했다.





마침 필자도 차의 점검을 받을 일이 있어 열린카센터를 찾아가보기로 했다. 조촌동 아리울에식장 지나 삼거리 방향으로 조금 더 가면 우측 대로변에 H 주유소가 있는데 카센터는 그 옆에 있었다. 인도에 세워 놓은 입간판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한동안 주변을 살펴야만 했다. 김명석 대표는 기름때 작업복에 먼지도 하지 않은 티끌한 인상이었지만 듣던 대로 친절하고 설명도 자세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도 몇몇 차들이 점검이나 수리를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김 대표는 대부분 수리비를 받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굳이 당장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간단한 수리까지 돈을 받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일부 공업사나 카센터의 과잉수리비 역시 언론보도로도 지적될 만큼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인 현실에서 김명석 대표의 친절한 점검 서비스와 상대적으로 낮은 양심적 수리비는 고객에게 감동을 줄만했다.

본래 군산 출신인 김 대표는 고교 시절 일찍이 취업반에 들어 정비를 배웠고 졸업 후에는 익산의 직업훈련원에서 수료과정을 마친 뒤 기능정비사2급

을 취득했다. 물론 자격증은 하나의 필요적 요건일 뿐 기술 수준은 저마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 일선 현장에서까지 실무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정비사 자격증 취득 후 그는 관내 몇 공업사와 카센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실무를 익히고 연마했다. 적성에도 맞아 그의 기술은 나날이 늘어갔다.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자 그는 8년 전 동군산병원 건너편에 카센터를 개업, 운영하다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지는 1년 6개월 전이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우리의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얼굴에는 미소를, 머리에 지혜를, 두 손에는 신뢰를'이라는 글귀가 액자에 걸려있는데 친구가 써준 것이지만 자기의 생각과 부합하여 걸어놓았단다. 당장의 금전적 이익만 생각하면 수리비를 조금씩이라도 부풀리는 건 쉬운 일이고 고객이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거니와 결국은 고객의 신뢰를 잃어 길게 내다봤을 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크리라는 것을 주변의 사례를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차의 수리를 앞두고 일단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준다. 부품 만해도 순정품(신품)과 B품, 중고가 있고 중고 중에서

도 상, 중, 하가 있을 터인데 각기 비용과 내구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선택은 고객이 하도록 한다. 그의 업소 수리비가 저렴한 것은 사실 부품 값은 싼 품이든 중고든 거의 정해진 가격으로 융통성이 적기 때문에 공임을 최대한 낮게 받기 때문이다.

자동차부분정비조합 동부지부(24업체)의 총무 직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자동차 제조회사 간에 정비 정보가 공유되고 부품의 호환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정비업체나 소비자 모두 훨씬 저비용으로 신속한 서비스가 이뤄질 텐데 일부 제조회사 측의 무성의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점을 큰 아쉬움으로 들기도 한다. 인터뷰 말미에 정비사로서 보람을 묻자 고객이 큰 만족감을 표하며 칭찬을 해줄 때 더없이 힘이 나고 보람이 느껴진다면 때로 고객들로부터 이렇게 수리비를 적게 받아 제대로 운영이나 되느냐 소리도 듣지만 그래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주시는 분들과 단골 고객이 늘다보니 웬만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입이 낫다면서 이마의 땀을 씻으며 환한 웃음을 보여준다.

열린카센터
군산시 변영로(조촌동)204
T.063)446-7408

'뽀뽀', '뽀뽀',
• 여기에서 •
저기에서 •
가을이 익는다!

똑딱이 카메라에 잡힌
깊어가는 시골 가을 풍경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가을 햇살이 눈부시다. 살랑살랑 춤추는 코스모스가 그지없이 아름답다. 은은한 흙냄새가 온몸을 휘감는다. 처연할 정도로 아름다운 하늘과 가을을 노래하는 코스모스가 향토적 서정성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세월의 깊이가 묻어나는 흙돌담이 여유와 운치를 더한다. 정감 넘치는 고즈넉한 풍경, 흙 한주먹, 잡초 한포기도 풍요롭게 느껴진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가을걷이 시작된 농촌… 짧아지는 해가 밍기만

‘벌써 10월이구나!’ 하며 세월의 빠름을 탄탄한 지 엇그제 같은데 중순을 넘어섰다.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寒露)가 지난지도 열흘이 되었다. 일찍 심은 벼들은 수확이 시작됐다. 황금 들녘을 지키는 허수아비 아저씨들이 더욱 바빠지는 때이기도 하다.

이 시간에도 창밖에서는 새를 쫓느라 쏘아대는 대포 소리가 여기에서도 ‘뽕’, 저기에서도 ‘뽕’ 요란하다. 전쟁 때만 쏘아대는 것으로 알았던 대포가 이제는 농촌의 풍요를 알리는 소리가 되었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반세기가 넘도록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에서 들려오는 듯한 대포 소리도 하루빨리 농촌에서 새를 쫓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을이면 7천만 민족이 손을 맞잡고 부르는 풍년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해본다.





찬이슬 머금은 국화꽃 향기가 그윽해지면서 기온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진다. 기온이 더욱 내려가 늦가을 서리 내리기 전에 추수를 끝내려고 농촌은 바쁘기 그지없다. 어제 수확한 나락을 도로에서 말리는 김씨 아저씨는 짧은 해가 밍기만 하다.

올해는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진 폭우로 농민들은 여름 내내 가슴을 졸이며 보냈지만, 수확의 기쁨이 있으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그러나 김씨는 그게 아니다. 한 필지 소출이 작년보다 10가마가 줄었다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그래도 김씨는 나락이 고루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쉼 사이 없이 당그레질을 해댄다. 짧아지는 해를 원망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쬔어주기를 소원한다. 날이 좋아야 3~4일 그럴잖으면 닻새는 말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름에 따면 '애호박', 늦가을에 따면 '늙은 호박'

정씨 아저씨는 밥만 먹으면 밭으로 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미안했던지, 물통을 지고 파밭으로 나왔다. 처음엔 쪽파와 대파를 심은 밭에 농약을 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 가물어서 파 이파리가 마를 것 같아 물을 준다고 했다. 정씨는 만날 때마다 게이트볼 치러 나오라고 성화다.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 함께 게임도 하면서 즐기라고 하는데 걱정이야.

요즘 농촌은 잘 익은 호박 따라, 벼 수확하랴, 서리 오기 전에 고추 따라, 깻잎 따라, 고구마 캐랴 정신이 없다. 우리 마을 농민들도 고단한 몸을 추스를 사이 없이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논밭에서 지낸다.

면사무소 방향 골목 집 담벼락에는 잘 익은 호박 세 덩이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매달려 있다. 물기가 다 빠져버린 줄기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위태위태하다. 하잘 것 없는 호박도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로부터 여름철에 나오는 호박을 '애호박',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에 따는 호박은 '늙은 호박'이라고 하였다. 검은콩이 줄줄이 박힌 호박떡과 어머니가 몸에 좋다며 끓여주던 달착지근한 늙은 호박국이 생각난다. 호박 얘기하니까 군침이 돈다.

늙은 호박 껍질을 수저로 벗겨 국을 끓이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그만이다. 당뇨에도 좋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따라올 음식이 없으니까 말이다. 국을 끓이는 방법도 쉽고 간단하다. 호박을 얇게 썰어 물을 적당히 부어 끓을 때,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양념으로 깨소금을 조금 넣으면 된다.

제사의 으뜸 과일 대추, 올해도 이웃과 나눠먹어

옆집 방울이 할머니가 김장 때 쓰려고 마당에 넣어놓은 빨간 고추들이 풍성한 가을을 노래한다. 고추들이 신부 화장을 끝낸 신부 입술처럼 도톰하고 예쁘다. 방울이 할머니는 고추도 작년보다 수확이 감소했다며 울상이다.

방울이 할머니는 나눠 먹기를 참 좋아한다. 올해도 상추와 고구마순 등 집에서 기른 채소를 몇 차례 가져오셨다. 먹고 싶은 채소가 있으면 따먹으라며 밭을 알려줄 정도로 잘해준다. 그렇게 넉넉한 인심에 취해서 그런지, 모두가 내 것 같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우리 집 대추나무도 해마다 대추가 주렁주렁 열린다. 파란 꽃대추가 붉게 물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대추가 작년보다 더 많이 열린 것 같다. 보기만 해도 푸짐하고 먹음직스럽다. 당도가 높고 살감살감 씹히는 느낌이 그만이다. 예는 정에서 나오고 정은 가까이서 나온다고, 올해도 이웃들과 조금씩 나눠 먹었다.

조율이시(棗栗梨柿)가 말해주듯 조상들은 대추를 제사의 으뜸 과일로 여기고 제사상 첫째 자리에 놓았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고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고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쪽빛하늘을 지붕삼아 집을 짓기 시작하는 예쁜 거미 한 마리가 눈에 띈다. 긴 호랑거미다. 한 줄 한 줄 거미줄을 치는 솜씨가 일류 목수처럼 능란하다. 겨울을 앞두고 먹이를 갈무리하려고 준비하는 모양이다. 흉물스럽게 생겼지만, 거미처럼 희생정신과 인내심이 강하고, 침착한 동물도 없다고 한다.

거미를 보면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한다. 내가 말을 듣지 않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거미 같은 인생"이라며 탄식해서다. 거미는 알주머니를 만든 후 새끼 먹잇감이 된다는 통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다. 풍요로운 계절을 말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는 이유는 왜일까.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낭만의 길

군산의 구불길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무더운 여름과 작별하고 푸른 하늘과 붉게 물든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슬슬 걷고 싶을 때,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수풀이 우거진 길을 여유와 자유, 풍요를 느끼며 걷고 싶을 때,

군산에는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길…,

‘구불길’이 있다.

자연·생태·역사를 아우르는 군산도보여행

구불길은 바다, 강, 호수가 만나며 평야와 나지막한 동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이 있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와 역사의 흔적을 만나며 여행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또한 여행 중 숨어있는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향토자원을 체험하며 여유롭고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불길 코스 소개

구불길은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내는 도보 여행의 여덟 길 ▲비단강 길 ▲햇빛 길 ▲큰들 길 ▲구슬땀 길 ▲물빛 길 ▲달밝음 길 ▲신시도 길 ▲고군산 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식 코스에 이어지는 테마 길 3코스로 ▲햇빛 길에 이어지는 미소 길 ▲달밝음 길에 이어지는 탁류 길 ▲신시도 길에 이어지는 새만금 길 등 총 11개의 코스가 있다.

구불길 총 길이는 188.9km이고 각 코스는 보통 20km 내외로, 코스 당 일반 성인의 걸음으로 대략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구불길 비단강길 : 총 거리 17.2km, 소요시간 308분

구불길의 첫 번째 길인 ‘비단강길’은 군산의 여러 명소 중에서도 금강이 주인공인 곳으로 비단처럼 펼쳐진 금강과 인접한 채만식 문학관, 금강철새조망대, 금강호관광지, 오성산 등을 둘러보면서 강물이 흐른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전설과 역사,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져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길이다.

구불1길 비단강길



구불4길 청암산 수원지

한여름의 강렬한 햇빛도 한겨울의 서릿발 같은 매서운 바람도 없는 가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계절이지만 유난히도 짧게만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유독 간절하게 가을의 기운을 만끽하고 싶어진다.

청명한 하늘 아래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군산의 구석구석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구불길'에서 가을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구불7길 석양



구불4길 구슬외길

구불길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에 상쾌함을 느끼면서 청아한 숲길을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기분이 든다.

산은 사람에게 있어 축복이다. 산행을 하고, 땀이 솟아나고, 정상에서 부는 바람에 상쾌함을 느끼면 스트레스는 어느덧 사라지고 행복감이 밀려온다.

군산에는 수십 년을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숲, 청암산이 있다.

밀림에 온 듯 수목으로 뒤덮인 호숫가의 숲길은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주고 스트레스로 병든 심신을 달래주며, 체력이 약해도,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도, 부담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암산이다.

청암(靑岩)산은...

조선시대 이전에 '푸른 산'이란 의미의 '취암(翠岩)산'으로 불리다가 일제 강점기에 같은 의미의 '청암(靑岩)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청암산 일대는 일제 강점기인 1939년에 군산에서는 처음으로 수원지로 조성되었으며 1963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3월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45년의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왔다.

수원지였던 곳은 현재 군산호수공원이라 불리고 있으며 그 면적은 2.34㎢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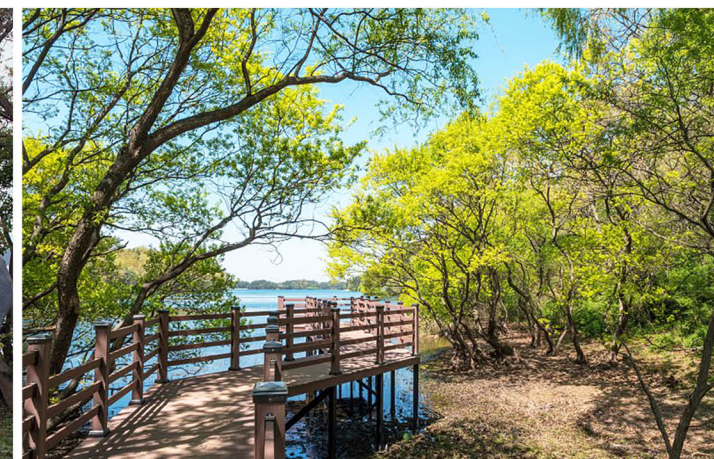
태고의 것
그대로의 자연이 살아있는
힐링의 숲

군산의 **청암산**으로 떠나자!!

11월 4일, '제9회 청암산구슬뒀 축제' 개최

지친 심신에 위안을 주는 전북의 대표 생태관광지, 청암산!!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군산시 옥산면과 회현면에 길게 드리운 청암산은 등산로 길이와 해발고도가 각각 13.8km와 117m로 나지막하면서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등산은 물론 산책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시원하게 펼쳐진 만경강 물줄기와 바둑판을 연상시키는 들녘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청암산 산행코스는 군산시가 도보여행객들을 위해 개발한 구불길 11개 코스 중 '구불5길 물빛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으뜸은 밀림을 연상케 하는 호숫가 수변산책로이다.

수변산책로는 보존 가치가 높은 다양한 습지 식생환경으로써 야생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처이며 물속에서 자라는 왕버들나무 군락지는 천혜의 경관

을 그대로 간직하여 학생들에게 생태 자연의 학습장소로 제격이다.

청암산 구불길을 걷다보면 코끝에 와닿는 호수내음과 함께 녹음이 울창한 수풀의 그윽한 향기로 도시생활에 지친 몸과 맘을 깨끗이 날려버릴 수 있다.

청암산 구슬뒹 전국등산축제... 올해로 9회를 맞는 '청암산 구슬뒹 전국등산축제'가 오는 11월 4일 군산호수공원 제방 및 청암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북도 생태관광축제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이번 '청암산 구슬뒹 전국등산축제'는 토종어류 방류, 트래킹, 생태관광 포럼 등의 생태관광 체험과 등산, 특산물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의 등산축제로 진행된다.

청암산구슬뒹 전국등산축제는 명품 청암산을 소재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축제 사전행사로는 옥산초등학교와 당북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와 전통악기 공연을 시작으로 생태관광 깃발 휘날리기, 생태관광지 안내판 제막식, 토종어류 방류 행사 등이 진행되며,

각 트래킹 구간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이 마련되어 생태관광 요소를 시연하여 생태관광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방문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에코매니저(해설사)가 생태관광 체험을 직접 돕는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특별공연(색소폰, 밸리댄스, 노래 공연 등)과 장기 자랑 및 경품 추첨이 군산호수 제방 무대에서 준비되어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축제에는 옥산한과, 알콩달콩된장, 밤호박, 울외장아찌 등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와 국밥, 비빔밥, 잔치국수, 수육, 솜사탕, 팝콘 등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즐거운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암산 오토캠핑장은... 28,150㎡ 부지에 오토캠핑 사이트 21개, 캐라반 사이트 8개, 캐빈 사이트 2개와 일반야영장 사이트 30개를 갖추고 있으며, 온수시설과 샤워장을 갖춘 취사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와 가족이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파고라, 바닥분수, 잔디광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캠핑장 중앙에 마련되어 있다.

매달 1,600여명의 방문객들이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찾고 있으며 캠핑마니아 그리고 도심에서 벗어나 구불길 산책을 하고자하는 시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1박2일 군산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암산 오토캠핑장에서의 1박을 강력 추천한다.

청암산 근처에는... 2~3시간의 산행 후 군산의 원도심으로 이동하면 근대역사박물관, 근대건축관, 신흥동 일본식가옥 등지에서 군산만의 특별한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청암산과는 구불길로 이어지고

군산시민들의 또 다른 힐링 명소인 '은파호수공원'은 계절별로 색다른 아름다움을 방문객들에게 선물한다.

또한 군산에는 서해안의 풍부한 해산물과 농산물로 형성된 군산만의 독특한 음식문화들이 유명해 전국의 미식가들은 단순히 먹기만을 위한 여행으로 군산을 찾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한 번의 청암산 방문으로 건강과 관광, 그리고 맛을 함께 즐기는 즐거운 여행을 누릴 수 있다.

올 가을엔 가족, 친구, 연인과 하늘하늘 흔들리는 역새, 부드러운 내려뜨린 버드나무가지, 청명한 바람과 함께 청암산으로 떠나보자!!

■ 명품보리의 도시 군산, 보리파종 차질 없이 진행

군산시, 찰보리 명품화 사업으로 보리재배 확대 선도
고품질 보리생산을 위한 철저한 포장 관리

올해 총 4,000ha의 보리파종을 계획하고 있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이하 농기센터)는 '군산찰보리 명품화 유지 시범사업단지'를 중심으로 벼 수확 후 보리 파종을 시작하며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에는 파종기 잦은 강우로 인하여 파종면적이 대폭 줄었으나 올해에는 맑은 날이 지속되고 벼 수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계획된 파종면적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품질 보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제초제 처리 및 포장관리가 중요한데 파종 후 3일전까지 제초제를 처리해야만 제초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초기생육을 안전하게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습해에 약한 보리의 안전한 생육을 위해 배수로와 배수골을 잘 정비하여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리는 겨울을 나기 전 잎이 5~6매가 확보되어야 안전하게 생육할 수 있으며, 종자를 너무 일찍 파종하면 월동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고 늦게 파종할 경우 어린잎이 저온에 노출되어 생육이 늦어지고 품질이 나빠져 수량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농기센터의 관계자들은 "군산지역은 10월 말까지 보리를 파종해야 하지만 기상조건이 좋게 경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맥류산업 활성화 및 충분한 원료곡 확보를 위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파종한계기인 11월 10일 이전까지 파종을 마치면 된다"고 전하며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파종량을 비례적으로 늘려 파종한계기까지 최대 30%정도 늘려 파종하는 것이 수확량 확보에 유리하고 강우로 인하여 파종이 어려울 때는 우선 종자를 파종하고 추후 복토 및 배수골을 정비해야 한다"고 관련 농업인들에게 조언했다. 안창호 농기센터소장은 "올해 지리적특산품인 찰보리의 명품 유지를 위해 찰찰보리 자체재종포 단지와 찰찰보리 지리적특산품 단지,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 생산단지 등 3개 사업에서 15개 단지(204.6ha)를 조성하여 군산의 보리가 국내 보리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야행,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트렌드 도입

성황리 마쳐

10월의 야행(夜行), 의례적인 개막행사 생략하고 콘텐츠에 집중

기존과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와 트렌드로 새로운 변화 시도해

지난 여름, 특색 있는 군산만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던 '군산야행(夜行)'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가을밤, 근대문화유산은 잠들지 않는다는 주제로 펼쳐지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번 '군산야행(夜行)'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야간형 문화행사로서, 근대문화유산과 어우러진 54가지의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도시 군산의 진면모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근대조형물과 각종 전시물은 최대한 기존의 제작품을 재활용하고 의례적인 개막식과 부대행사를 생략하여 홍보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예술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군산대학교, 지역 상가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야행의 테마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내실화에 집중했다. 또한 행사를 알리는 시립예단의 플래시몹 특별공연과 함께 ▲전국 버스커즈인들의 꿈의 향연 2017 버스커즈 in 군산 전국대회 ▲쌀수탈 테마연극 아리랑 노래 ▲동국사 산사음악회 ▲어린이타악 거리테마 공연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용, 민요, 판소리 공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으며, 문화재 3D증강현실 체험, 문화유산 매직큐브 만들기, 군산역사 퀴즈왕, 한지전등 갓 만들기, 개항 쌀 지게 체험, 명인명구 붓글씨, 황실 고전머리(가채) 체험, 먹방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등 역사를 배우며 즐길 수 있는 16여 가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운영되었고, 신흥동 일본식가옥 내부개방, 개항 118년사 사진전시회, 군산 신문기사전시회, 근대문화유산 사진작품 전시회, 영화 속 군산이야기 상영, 서예·문인화 작품 깃발전 등 12가지의 다양한 전시회가 펼쳐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새로운 콘텐츠와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의 시도가 눈에 띈다. 운영이 중단된 나드리 게스트하우스의 건물을 재활용하여 군산의 낭만과 추억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공간과 역사를 배우는 미니북카페로 탈바꿈한 군산 기억창고를 비롯해, 진주유등축제에서 전시되었던 다양한 유등을 마련한 진주유등축제 특별 전시회, 쌀 수탈의 역사를 극화한 기획 테마공연 아리랑 랩소디, 가을밤 낭만과 추억을 노래하는 7080 달빛음악회, 구)군산세관 건물을 배경으로 펼쳐진 5인조 브라스밴드 공연, 한지 갓등 만들기 체험 등 새롭게 시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 호평 속에 색다른 경험과 재미를 선사했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야행은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내년의 야행을 준비하고 반영하고자 추진하다보니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하며 "야행을 통한 긍정적인 평가는 야행을 시작한 이후 행사구간에 비거나 닫혔던 건물들이 점차 상점들로 리모델링 되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내실 있는 행사를 통해 골목길 상권 활성화와 도심 재생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군산시,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군산시가 오는 11월 10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옆 특설 무대에서 '제2회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산시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성낙도)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성산면 고살매 품물패의 식전공연에 이어 관내 관계자들을 초청해 진행될 기념식과 우수 농업인 시장 표창 수여식, 농업인들의 화합을 위한 화합합곡식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 한우협회, 한돈협회 주관으로 한우고기 및 돼지고기 시식회와 낙농육우협회의 우유, 치즈 등 유제품 시식회를 통해 군산에서 생산되는 우수 축산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군산시생활개선회에서는 가래떡과 홍보용 쌀, 보리 등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창호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는 군산 농민들의 의욕과 위상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군산의 농민들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행사"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행사에 참여하셔서 군산 농특산물과의 거리를 한층 더 가깝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군산시, 2018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특색 있는 간판 정비로 원도심 활성화 아바지할 것

군산시 중앙사거리에서 해신동사무소까지의 중앙로 거리가 특색 있는 간판으로 정비되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된다. 군산시는 전북도에서 주관한 '2018 옥외광고물 간판개선 사업' 공모에 '중앙로(중앙사거리~해신동사무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2018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된 중앙로의 약 400m 구간은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간여행마을에 위치한 거리로 음식점 및 상가들의 노후화된 간판들이 난립해 있는 구간이다. 이에 시에서는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중앙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군산의 특색과 건물·업소별 특성을 살려 미적으로 아름답고 시각적으로도 돋보이는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간판을 일정한 높낮이로 맞추고 보행 안전 및 거리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나아가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중앙로 구간의 상가주들을 중심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



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건물·업소별로 어울리는 간판 개선의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간판은 건물의 얼굴이며 거리의 문화를 대변하는 도시경관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과 합심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군산만의 매력과 특색을 살린 경관조성으로 군산시가 한층 더 빛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 '군산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을 개최해 간판의 질적 향상과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정착하고 군산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이고 조형미 넘치는 우수한 간판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 군산시, 3·5만세운동길 조성사업 추진

3·5만세운동의 항일정신 계승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되새기는 계기 마련

군산시가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3·5 만세운동'의 항일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구암동 3·5만세운동 기념관 일원에 '3·5 만세운동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5 만세운동길 조성사업'은 '3·5만세운동 기념관', '구암동산 공원조성', '기념탑 및 체험·교육관 설치' 등 군산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후손들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만세운동길의 위치는 세풍아파트부터 구암동산까지의 진입로 약 230m이며 이곳의 웅벽, 석축, 펜스 등을 활용하여 조형벽화와 조형물 등을 설치해 군산이 간직한 역사의 이야기들을 담아낼 계획이다. 또한 한강이남 최초 만세운동인 3.5만세운동, 옥구 농민항쟁, 임피 만세운동, 영명학교, 구암교회 등 군산 항일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 사건, 장소 등을 콘텐츠로 활용해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경곤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의 근대사를 일제에 의한 수탈의 아픈 역사뿐만 아니라 항일항쟁의 역사까지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록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군산 지역 주민과 어부들이 선호했던 어류(4)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itel.net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8)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군산 앞바다 어장(고군산 군도 근해, 금강)에서 잡히는 주요 어류는 조기, 복어, 상어, 민어, 흥어, 뱀어, 갈치, 게, 삼치, 대구, 청어, 새우, 송어, 병치, 오징어, 가오리 등 35종에 달하였다. 그중 일본인은 값비싼 민어, 준치, 뱀어 등을 먹었고, 조선인은 흔하고 값싼 갈치, 송어, 아귀 등을 먹었다.

준치는 진어(眞魚)로도 불리었다. 진어는 '참다운 물고기'라는 뜻으로 뱀어와 함께 금강에서 많이 잡혔다. 뱀어는 멸치처럼 통째로 먹었다. 준치는 '씩어도 준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맛이 좋았으나 살에 가시가 많은 게 흠이었다. 오죽했으면 일본인들이 '가시만 없으면 조센징 먹기는 아까운 생선'이라며 한국인을 비하할 때 빗대어 말했을까. 광복 후에는 '조센징'이 '존놈'으로 바뀌어 실소를 터뜨리게 한다.

1945~1961년까지 군산수협 공판장에서 위판한 주요 어종은 조기, 갯장어, 고등어, 서대, 병치, 농어, 도미, 갈치, 대구, 민어, 상어, 복어, 대하 등 22종이었다. 1964년 기록은 뱀어, 전어, 웅어 등이 추가되어 27종으로 늘었다. 1990년 통계는 강물 오염으로 뱀어가 사라지고, 주꾸미가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그중 군산 지역 주민들이 즐겨 먹었던 조기, 아귀, 흥어, 상어, 대하, 갈치, 꽃게, 우럭, 물매기, 망둥이, 박대, 황석어 등을 소개한다. 오늘은 망둥이, 박대, 황석어에 대해 알아본다.

작은 각시도 모르게 먹었다는 '망둥이'

망둑엇과에 속하는 연안성 물고기로 늦은 봄에서 가을에 걸쳐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어귀 기수지역에 군집하였다.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다. 미식가들에게 '주둥이가 못생겨서 슬픈 생선'으로 불리는 망둥이는 비교적 흔한 물고기로 봄부터 여름까지는 민어, 농어 등 고급생선에 밀려 생선 축에도 끼지 못하다가 가을이 되면 인기가 치솟았다.

가을 망둥이는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씹을수록 단맛이 감돌아 낚은 자리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오죽하면 '9월 망둥이에 맛을 들이면 광어나 도미, 농어 등은 싱거워서 못 먹는다'는 말이 나돌았을까. 망둥이 머리까지 칼로 톡톡 쪼아 갯알에 싸 먹기를 즐기는 미식가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다.

예나 지금이나 망둥이는 여름에도 별미로 통한다. 어부들이 한가할 때 낚

시로 잡아 해풍에 꼬들꼬들하게 말려 연탄불에 구워 참쌀고추장에 찍어 보리밥과 함께 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감돌기 때문이다. 고추장을 풀어 애호박과 함께 찌개를 끓여도 얼큰하고 담백한 진국이 우리나라며 삼북더위를 가시게 하였다.

망둥이는 기름기도 없고 담백해서 국물이 시원하기가 그만인데 맛도 좋지만,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바삭 말린 망둥이는 술안주로도 인기가 좋았다. 옛날 껌보선창 어부들 사이에는 '9월 망둥이는 작은 각시도 모르게 먹는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래서 그런지 생선이 흔하던 시절에도 배에서 말린 망둥이는 구하기가 어려웠다.

군산의 대표 생선으로 발돋움하는 '박대'

박대는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하며 몸은 혀 모양으로 길게 늘어나 있다. 몸과 머리는 옆으로 매우 납작하며 위에서 보면 체형이 긴 타원형이다. 서해연안 바다의 진흙 바닥이나 강물이 바다로 나아가는 기수지역에 서식한다. 박대는 군산을 비롯한 전북 연안에서 참서대와 함께 저서성 어류의 우점종으로 많은 양이 출현하였다.

박대는 담백하고 맛이 좋으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생선이었다. 맛을 아는 어부 가족과 선창가 주민들이 김치찌개나 조림, 살짝 말려 연탄불에 구워 먹는 정도였다. 그러나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값도 저렴한 게 알려지면서 서민 대중의 기호식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요즘엔 군산을 대표하는 생선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가을 전어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을 유행시켰다면, 박대는 '시집간 딸에게 박대 선물하면 버릇이 되어 친정에 자주 들른다'는 말을 만들어 냈다. 한때 군산 껌보선창에서는 '내 집 찾아온 손님 박대하면 벌받고 박대 대접하면 복 받는다' 말이 유행하였다. 그만큼 맛이 좋은 생선이라는 얘기가 되겠다.

박대에도 윤기가 돌고 맛이 좋은 '참박대'와 약간 검은 색을 띤 '보리박대'가 있는데, 바닷물고기 중 유일하게 '각시' 성(姓)을 가진 어류이다. 몸통에 색동처럼 예쁜 줄무늬가 그려진 '각시 박대'도 있었으나 불법 남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되면서 요즘엔 보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군산 박대를 많이 찾는 이유는 갯 잡아 온 생물을 염수(鹽水)로 씻어 껍질을 벗겨 내고 바닷바람에 꾸덕꾸덕 말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묵은김치를 넣고 찌개를 끓이면 그 맛 또한 일품이다. 색깔이 연하고 담

백해서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오르는 생선이기도 하다. 벗겨 낸 껍질로 묵(우무)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껌보선창을 상징했던 황석어젓

황석어는 농어목 민어과에 속한 바닷물고기다. 군산 지역에서는 '황새기'로 불리었다. 1960년대 이전 서남해안에서 많이 잡혔다. 가정에서는 찌개나 구이보다 젓갈을 담가 먹었다. 한때는 군산 껌보선창을 상징하는 젓갈이기도 했다. 지금도 금암동에 가면 황석어젓을 담그던 '젓당꼬'를 볼 수 있다.

황석어는 성어도 조기와 비슷한 봄철이었다. 생김새와 색깔도 비슷했다. 그래서 조기 새끼로 착각하기 쉬운 생선이다. 어학사전에서도 '참조기를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오류이다. 멸치가 크다고 쫄치가 될 수 없듯, 황석어는 아무리 커도 참조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황석어는 맛과 어종이 조기와 다르고 씨알도 훨씬 작다.

황석어는 '조기 사촌'으로 알려지는 부세(부서)보다 맛이 좋았다. 백조기, 수조기도 있는데, 어종 자체가 조기와 다르다. 조기를 인간에 비유한다면 부세는 흑인종, 황석어, 백조기 등은 침팬지 아니면 오랑우탄 수준이랄까. 한때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놀리는 말로 '멸치도 생선이나', '황석

어도 조기냐!' 등의 우스개가 유행되기도 하였다.

50~60년대에는 조기 어장이 끝나면 황석어잡이가 시작됐다. 껌보선창에는 황석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 많은 황석어는 아낙들의 광주리와 짐꾼들의 달구지에 실려 젓당꼬로 옮겨졌다. 황석어젓은 가을이 제철이었다. 으름 천일염으로 여름 내내 숙성시킨 황석어젓은 '밥도둑'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맛이 좋았다.

잘 숙성된 황석어 젓국을 양동이에 남실남실 담아놓으면 누런 기름이 동동 떠다녔다.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면 짭맛이 나면서도 뒷맛이 구수하고 입안에 단맛이 감돌았다. 집으로 배달된 황석어 젓국은 주부들이 장작불을 피워 가마솥에 간장 달이듯 달였다가 김치를 담가 먹었다.

군산 지역 주부들이 황석어 젓국을 얼마나 선호했는지는 30개가 넘는 껌보선창 부근 젓당꼬와 김장철을 앞두고 항상 북적였던 당시 선창가 풍경이 말해준다. 김장철이 되면 젓국을 물지게로 나르는 일꾼들 고함소리가 귀청을 때렸고, 검정 고무신에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른 무명옷차림의 아낙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거리거리 장관을 이루었다. (끝)

출처: <군산항에 얹힌 이야기들>
(2017 군산문화원 발행)

잇몸약은 잇몸을 튼튼하게 해줄까요?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까지 잇몸이 나쁜데, 이0탄, 인0돌, 이0튼 같은 잇몸약 먹으면 좋을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약에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질병을 안전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염증이 심할 때,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항생제 성분이 몸속의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해서 염증을 낮게 하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복용하는 약은 질병을 치료해서 건강한 신체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해서 환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치료해서 건강한 신체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는 약을 개발한다면 노벨상을 수상하겠지요. TV. 광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잇몸약들은 잇몸질환을 치료해서 건강한 잇몸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 잇몸이 붓고 피나는 것, 이가 흔들리는 것, 잇몸이 근질거리거나 아픈 것 등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투약을 중지하면 원래의 치주질환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잇몸약이 치주질환을 치료해서 건강한 잇몸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치주질환으로 인해 잇몸이 붓고 피나고, 간질거리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잇몸약을 먹어서 잇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잇몸약을 먹으면 나쁜건가요?” 이런 의문이 떠오르겠지요. 5년 10년 장기적으로 잇몸약을 먹으면 무엇인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잇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잇몸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잇몸약을 구입하고 하루 2번, 3번씩 챙겨 먹는 정성을 칫솔질하는 것에 투자한다면 잇몸 건강은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30살이 넘는 대부분의 사람은 심하든지 가볍든지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고 면역력이 좋을 때는, 가벼운 치주질환의 경우 면역력이 충분히 억제해서 잇몸이 붓거나 피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잇몸이 붓고 피나고, 근질거릴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이가 쏠는다.’는 것이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건강한 잇몸이었지만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잇몸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면역력이 박테리아를 억제해서 증상 없이 지냈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박테리아가 왕성하게 증식하여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해서 이가 쏠는 느낌이 불편한데, 도저히 치과에 갈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1~2 주 정도 제한적으로 잇몸약을 먹는 것은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시간을 내서 치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잇몸약들은 치주질환을 치료하여 건강한 잇몸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나고 아픈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잇몸이 나쁜 분이 해외여행갈 때 준비했다가 필요할 때 드시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단골치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지요.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 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올려도 OECD 중위권 수준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율인상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40%인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하는 것인데 최고세율 42%는 다른 나라의 소득세율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가량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더라도 OECD 내에서 중위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곳은 45.7%인 16개국이었습니다.

반면 소득세율을 인하한 곳은 4곳 중 1곳인 9개국(25.7%)이었고, 28.6%인 10개국은 유지했으며,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평균은 2008년 34.9%에서 2016년 35.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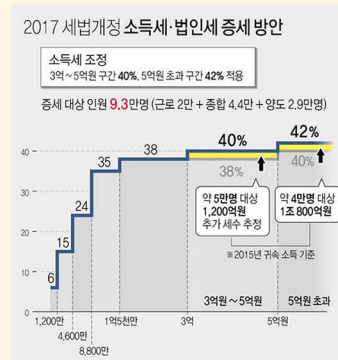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최고 세율

을 35%로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38%를, 올해부터 다시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높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55%)와 네덜란드(52%), 벨기에·이스라엘·슬로베니아(50%) 등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무려 50%대였고, 포르투갈(48%), 프랑스·독일·그리스·호주·영국·일본(45%), 이탈리아(43%) 등 모두 13개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세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미국(39.6%), 터키·멕시코(35%), 핀란드(31.8%) 등은 30%대였고, 슬로바키아(25%), 스페인(22.5%), 에스토니아(20%) 등은 20%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동구권 몇몇나라를 제외한 OECD 평균인 47%에 비하면 높다고 볼 수 없으나,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현실은 개선하지 않고, 세율인상이라는 손쉬운 증세수단만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역량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금번호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명도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사례

01.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며 임대보증 금에서 삭감하라고 우기는 경우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은 임차인이 차임을 2번 이상 지급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
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
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한
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02. 소송절차가 아니고 제소전화해라 고 하는 것이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한 6개월에
서 1년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상당
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한다는 합의
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는 기일을 거쳐 제소전화해결정문을 보
내주며 추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03. 명도소송의 기간, 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통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어디이나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
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문을
받아보기까지 약 4개월 가량 소요된다
고 보면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룰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
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은 변호사보
수, 인지대(부동산가액에 비하여 산출),
송달료 등을 지불하여야 하며,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비용상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04. 임차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내 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전혀 모르더라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지요?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지 않고서도 명
도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
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소
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통
하여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원만한 해
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합의의 의사
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 필요 없이 곧바로 명도소송을 제기
하면 됩니다.

05. 명도소송기간중의 관리비납부의무 는 누구에게 있나요?

차임과 더불어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되
는 관리비 역시 임차인에게 기본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을 제기할 경우 월임차액 및 관리비 혹
은 기타 손해배상액의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대두될 수 있
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
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군산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렇게 어려
울수록 부동산의 옥석을 선별하여 따듯
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보류 유감

한국과 중국 등 8개국이 공동신청한 일
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기
록유산 등재가 예상대로 일본의 압력
에 밀려 결국 보류됐다. 이는 위안부 기
록물의 등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
여온 일본의 승리이자, 우리 정부에게
는 외교전의 쓰라린 실패 결과라 하겠
다. (중략)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국간 대화를 촉구하고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최대 4년간 심
사를 보류하는 결의(심사제도 개혁안)
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새 제도
의 적용은 2019년부터 적용되는데, 유
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신청은 2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따라서 지난해 5월 세
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한 위안부 자
료가 올해 등재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
제도를 적용받게 되고, 결국 일본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등재가 어
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 일
본 정부는 그동안 유네스코 분담금 지
급을 거부하면서까지 위안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의 심사 대상이 되는 것
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뉴
시스)

최근 미국은 유네스코(UNESCO)에 탈
퇴를 통보했다. “늘어나는 유네스코 (분
담금) 체납금, 근본적인 조직 개혁의 필
요성, 계속되는 유네스코의 반(反) 이스

라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스라엘도 미국을 따라 탈퇴
를 예고했다. 그리고 일본은 유네스코
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담
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기간 유네스코
가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분담금 지급을 연기하며 유네스코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최근 미국의 탈퇴 이후에는 공식
적으로 최대 분담금 지급국가가 돼 영
향력이 이전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미
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이스라엘과 팔
레스타인, 시리아 그리고 최근 요르단
강 서안 헤브론(아랍어 ‘알할릴’) 구시
가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이
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유
산’으로 등록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설가들의 지적이다. 이곳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
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유엔(United Nations)을 근간으로 설
립된 많은 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간의 비용분담이 있
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유네스코 분
담금 순위 1위는 미국으로 3,800만 달
러 그 뒤로 일본이 1,600만 달러, 중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오다가 우리나라
는 13위로 350만 달러를 납부한다. 미
국이 우리나라보다 10배를 많이 납부
한다니 어쩌면 목소리도 10배는 작아
야 정상일까?

자유와 인권, 보편적인 정의를 구현한
다는 이념아래 설립된 단체가 돈을 많
이 부담하는 국가의 입김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세계정치사의 적폐가 아
닐까? 일본의 침략 전쟁을 은근슬쩍 감
추려는 “위안부 기록물 저지”의 모습에
서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단체의 회원이면 모두가 동일한
의사표시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모
두가 동일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
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지만, 비
용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결정을 한다
면 이 또한 낡고 버려야 할 악습이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안팎으로 잃어버린 내 자리
에서 제 자리를 찾는 날까지 할 일 많
은 시대다.

1) 유네스코(UNESCO)는 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영어: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
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로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전문 기구이다. 기구의 목적은
유엔 헌장에서 선언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 그
리고 법의 지배, 더욱 보편적인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국가간의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 교류
를 통한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
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유네스코 본부는 프랑
스 파리에 위치한다. (위키백과)

글 |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통자수의 오늘을 만나다

띠빳빳 손자수연구원 자수공예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시민 열린갤러리 공모전의 네 번째 전시로 '띠빳빳 손자수연구원 자수공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군산 시민들에게 박물관 내 전시공간을 지원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을 도모하고, 군산시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홍보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시를 진행하는 '띠빳빳 손자수연구원(원장 차수자)'은 군산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무료 손자수 교육,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봉사, 아동청소년 체험 학습장 운영에 앞장서며 우리 전통자수의 가치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손으로 짓는 이야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띠빳빳 손자수 연구원 10여명 회원들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며, 작품명 '감투함미' '인연' '꿈' '아련한 기다림' 등 총 100여점의 작품이 박물관 1층 열린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특히 프랑스 자수 기법과 동양 자수 기법을 함께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자수로 표현된 무명 침구류, 광목 커튼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골무, 인두, 베슬, 검정고무신 등 소박한 전통 생활소품을 활용한 작품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전시는 내달 11월 18일까지 진행되며,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한 자수공예 작품들을 경험하고 싶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시민 열린갤러리 네 번째 전시는 우리 전통자수의 실용성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자리로 기획되었다"며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이 오롯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자수공예를 통해 관람객들이 한국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여명이 방문하였고, 30여 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매월 평균 9만 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이 테마단지화되면서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관람객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원도심 체험보물지도 제작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군산의 문화도시의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체험 운영 공방 발굴 '보물지도'를 제작한다.

원도심(월명동, 개북동, 영화동)을 거점으로 공방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체험을 통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만나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참여의지와 조사의 과정을 거쳐 제작한 보물지도는 청년 브랜드 마케터 발견의 기회와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다.

지도를 제작 진행 중인 군산시민예술촌은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의 플랫폼역할로서 지역민과 관, 학계가 커뮤니티를 통하여 함께 군산의 미래 발전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도는 11월 말경부터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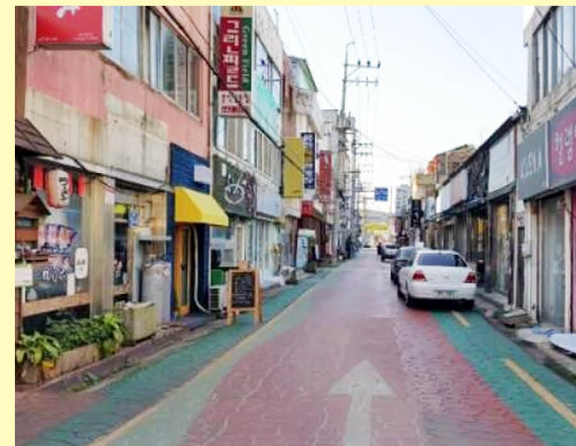
사회입문을 앞둔 청소년을 위한 낭만콘서트 'Fun Fun하게 놀자'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좀 더 다른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달려온 청소년.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응원과 공감을 나눌 낭만콘서트가 11월 21일부터 시작되어 29일까지 군산지역 내 5개 학교와 진행된다.

'Fun Fun하게 놀자'라는 행사명으로 진행될 콘서트는 먼저 사회에 입문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으로 열정적으로 삶을 즐기고 있는 선배들을 초청, 공연을 통하여 몰랐던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젊은 팝아티스트들의 인문학강연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도배포 : 11월 20일경
배포처 : 군산시민예술촌
문의 : 063.443.7725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 www.gsartzone.kr

청소년 복지 및 안전의 관점과 정책적 모색하다.

지난 10월21일(토) 오후 3시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는 '청소년 복지 및 안전관점과 정책대안은?'이라는 주제로 군산시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이 진행되었다. 포럼은 청소년자치연구소와 매거진군산, 군산스토리 등이 공동 주관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 및 연구를 기반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총 5회의 포럼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포럼은 교육과 진로를 주제로 11월25일에 개최된다.

청소년 복지와 안전을 주제로 금번 4차 포럼의 기조발제에서 광주대 사회복지학과의 이용교 교수는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후 체계적 시행, 청소년관련 인력과 예산확보, 청소년 관련 법령과 조례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 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행, 청소년시설 확보, 청소년지도자(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역량 강화 및 지원, 학교내외 청소년복지 지원, 유해환경 감시, 일하는 청소년 권익 보호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 참여 보장을 강조했다.

김소현 청소년은 그 동안의 청소년복지 안전분야의 정책 제안 과정을 소개했고, 분과장 전건우 청소년은 군산시에 특화된 안전 프로그램 개발, 시내버스 개선, 봉사활동 시스템, 순찰강화 및 자율 방



범대 등 안전 강화, 청소년놀이 쉼터 설립과 기타 다문화 청소년지원과 교류와 같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이지수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는 취약계층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을 강조하며, 특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군산이 취약계층 요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내실화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들의 인권실태이라는 과제가 시의 정책과 예산의 배정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미 사무국장(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은 비다문화인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고, 다문화 자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이중언어 교육, 중도입국자녀 등의 차별화된 접근과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배형원 군산시의원은 인구절벽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청소년복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미흡한 분야가 지자체 등의 관심이 너무 부족한 측면에서 직접적인 제안을 안내하고, 청소년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창의성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성 교육

등을 강조했다.

안전 전문가인 삼영종합중장비학원의 한훈 이사는 "안전은 자유가 전제가 되는 것으로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 내리며, 종합안전 협의체 재구성 및 시장 직속 청소년안전팀 구성, 안전체험교육관 신설, 운수사고 예방 교육, 자전거 인라인 등 청소년 레저용품에 대한 안전의 제도적 시스템의 필요까지 전문적인 내용은 제안했다.

기조발제와 패널 토론 발표 후에는 포럼에 참가한 참여자들과 함께 정책 제안 뿐 만 아니라 이행 이후 모니터링에 대한 고민과 안전센터의 구체화, 아동친화도시로의 내용 살리기, 정책이 이행되는 행정의 어려움, 아동학대 문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오늘 포럼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차후 정리 및 보완하여, 2018년 청소년 친화 정책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4회 일일차집

청소년자치연구소 자원활동가 꿈청지기는 11월 11일에 제4회 일일차집을 연다. 차집의 수익금 전액은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차집은 레몬청, 대추생강청, 유자청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품과 음식을 판매할 예정이다.

일시 2017년 11월 11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475-1 세한빌딩 3층)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군산시립예술단 합동 기획연주회 뮤/지/컬/콘/서/트



군산 행복버스

가족의 의미와 삶의 소소함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2017.11.17 (금) 19:30 | 지휘 박지훈
2017.11.18 (토) 15:00/19:00 | 지휘 백정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주최 군산시 주관 군산시립예술단 전석 5,000원 (36개월 이상 입장가능)

● 티켓 예매 안내

티켓금액	전석 5,000원 (36개월 이상 입장가능)
예매안내	인터넷 예매 또는 오프라인 현장 판매 가능 (전화 예매 불가)
인터넷예매	금강방송 홈페이지(www.kcn.tv) ~ (2017년 10월 25일 10:00 시작 ~ 11월 15일 16:00 마감)
오프라인 현장판매	예매한 좌석권은 공연당일 대표소에서 현장수령 함(우편 수령 신청 시 수수료 2,500원 추가결제) ※ 결제 시 선택
공연당일 현장판매	장소 : 오차트 카미온(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2층 / 063-442-2500) ~ (2017년 10월 25일 10:00 시작 ~ 11월 15일 16:00 마감)
	오프라인 예매 시 현장에서 직접수령하거나 공연당일 대표소에서 수령 가능(본인 선택)
	공연시작 1시간 전(18:30)부터 판매하여 현금결제만 가능함(취소, 환불 불가) ※ 인터넷예매 마감 후 전좌석권 판매함
합인대상 및 기준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유족증서 소지자)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장애인증서 소지자)
	65세 이상 시민(신분증 소지자)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문화누리카드 소지자)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초, 중, 고등학생
	다자녀 가구(동본소지자)

● 티켓 취소 일자별 수수료 안내

기간	취소 수수료	비고
예매 후 7일 이내	없음	※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음. ※ 예매 후 7일 이내에도 취소시점 이 공연일로부터 10월 10일 이내면 관람일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취소 수수료가 정산됨.
예매 후 8일 ~ 공연일 10일전(예매일 ~ 11.7)	티켓 금액의 10% 이내	
관람일 6일전 ~ 3일전(10.11 ~ 11.14)	티켓 금액의 20%	
관람일 2일전 ~ 1일전(11.15 ~ 11.16)	티켓 금액의 30%	
공연당일	취소, 교환, 환불 불가	

● 전단지 배부처

한림고 나문정(463-3131), 무직문우(463-8200), 신복문사 카미온(464-4991), 푸리디스 푸리디스(471-8525), 학동동(468-1530), 울수진 파이스튜디오(462-0322), 시립도서관(462-2241), 이성당(445-0020), 세고비 이작(464-0720), 개북기독교교회(446-5987), 우리로고(445-0031), 시민예술관(443-7725), 영국빌딩(466-3477), 미카엘 실용음악학원(471-7181), 울스그로비티(462-1500), 하늘의 카페(467-7554), 이강동 내개(462-1000)

● 공연문의 063)454-5558~9

● 홈페이지 www.gunsan.go.kr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나라음악, 바람을 품다 디토보체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II 군산예술의전당 나라음악, 바람을 품다 Fall In Piano 제3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45회 호남오페라 단 정기공연 '달하 비취시오리' - 전주 Sand Art 눈보라 'The Snow Storm' 고전클래식 2중창과 아리아 가곡의 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발레 호두까기 인형 군산예술의전당 '달하 비취시오리' - 전주 Sand Art 눈보라 'The Snow Storm' 낭만보이스 제3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트럼펫파이어 제8회 정기 연주회 글로리 플루트 앙상블 제7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7회 군산실버 합창단 정기 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전주대학교 음악과 제65회 정기 연주회 전북가야금연주단 제16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립국악단 제211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우리가락 우리숨결 군산예술의전당 CTS 전북방송여성 합창단 정기 연주회 목요국악예술무대 SAC ON SCREEN-호두까기 인형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아마빌레윈드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 연주회 독일가곡 시리즈 1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7 거미 콘서트 - 전주 신지아 바이올린 라시이틀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제27회 성악 졸업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가족체험공연 『샌드아트&매직』 군산예술의전당 노스트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가족뮤지컬 『종이나 라 엘리스』 군산예술의전당 비르투오조 정기 연주회 한소희 클라리넷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AWESOME quartet 제2회 정기 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립예술단 합동 기획 연주회 미래 명무전 군산예술의전당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공연! 비밥! All That Jazz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립예술단 합동 기획 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공연! 비밥! 연극 유도소년 수피아 중창단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세광솔라남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피아노예코 제16회 정기 연주회 프로인데 기획 연주회 '혼자, 그리고 함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19회 타악공화국 흠소리 정기 공연 군산예술의전당 한울림합창단 제23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박규연의 아르모니아 군산예술의전당	브레이크뉴스 개설 3주년 기념 콘서트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주시립교향악단 제224회 정기 연주회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49회 군산영광 여고 정기음악회 군산예술의전당 뮤즈 성악 앙상블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곽민석의 수궁가 완창 발표회 군산예술의전당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아트스테이지소리 ep60 노리플라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시민합창단 제5회 정기 연주회 카이데이 음악행사 군산예술의전당 첼리첼로 제10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9회 베드로 남성 합창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7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 '냇달' - 제나뎡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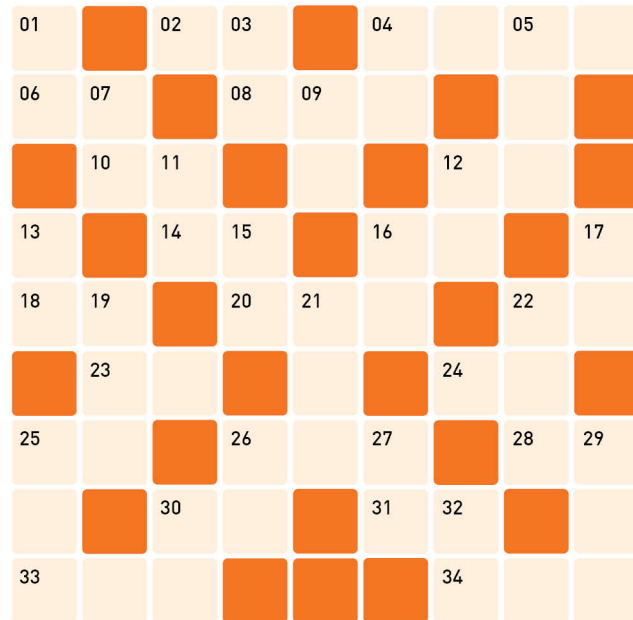
The collage consists of 14 individual posters for cultural events in Seoul:

- 2017 SHINYE CONCERT**: 가미 앨범 발매기념 콘서트 (KAMI Album Release Memorial Concert) by STRUCKE. 11.11 Sat. 6pm.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
- Sand Art**: 눈보라 The Snow Storm. Nov. 11, 3pm, 11:00, 19:30 / 11.4pm 11:0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실내극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ALL THAT JAZZ LIVE MUSIC**: 2017.11.31 (Friday) 17:00pm.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 31st Jazz Festival - 31st Jazz Festival - 31st Jazz Festival.
- 목요국악예술무대**: 2017.9.7-11.23.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CHRISTMAS CANTATA**: 크리스마스 칸타타. 2017년 11월 18일 - 12월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no reply**: 11.25.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
- 유도소년**: 2017. 11. 18(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군산 타임버스**: 가을의 추억과 물의 소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고기난동**: 2017. 11. 18(토) 11:00, 19:3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달하비취시요리**: 2017. 11. 3(토) PM 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공연 비빔밥**: 2017. 11. 17 ~ 18일 (토, 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날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워 크로스워드 퍼즐 76



<제75호 퍼즐 정답>

한	가	위	수	유	기	
중		장		오	로	근
소	나	무		진		시
벤		도	계		부	안
처	마		집	어	등	사
기		이	질		화	부
업	등	이		타		마
부		제	날	짜		항
귀	이	개		고	쟁	이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ay0810@hanmail.net

정답이었으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 열쇠

- 02 머느리.
- 04 독일 공영방송의 기자이자 언론인으로 5.18당시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한 인물. 일명 '푸른눈의 목격자'로 불리며 영화 '택시운전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 06 이것이 사람 잡는다고.
- 08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
- 10 서로 마주하여 술을 마심.
- 12 흙을 잘못 다루어 지신(地神)을 노하게 하거나,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려 걱정이나 해를 입는 재앙.
- 14 액체, 가루 따위를 흩어 뿌림. 곰팡, 전단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줌.
- 16 뛰어나게 잘 부르는 노래. 또는 그 사람.
- 18 왕과 그 가족들의 칭호 밑에 붙이어,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20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상처. 22 배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 23 안개가 걷히듯 흩어져 없어짐. 어떤 일이 희미부지 취소됨.
- 24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
- 25 종교적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
- 26 축음기.
- 28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 30 느림과 빠름. 급함과 급하지 않음.
- 31 시, 소설, 그림 등을 연습 삼아 지음. 또는 그런 작품.
- 33 진짜 남자. 남자 중의 남자.
- 34 차나무의 어린 새싹을 따서 만든 차. 찾일이 참새의 헛바닥 크기만 할 때 따서 만든 데서 붙은 이름이다.

▶ 세로 열쇠

- 01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입동과 대설 사이에 들며 올해는 11월22일.
- 03 폐(肺). 노엽거나 분한 마음.
- 04 귀땀. 암시.
- 05 반칙을 한 경우 경기자에게 주어지는 벌칙. 〇〇〇킵.
- 07 굵고 거친 삼실로 짠 커다란 자루.
- 09 머리를 물결 모양으로 굽슬굽슬하게 지지는 일. 또는 그 머리.
- 11 작대기 끝에 뾰족한 쇠를 박아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
- 12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
- 13 화재를 마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15 건물의 입구에 지붕을 갖추어 차를 대도록 한 곳.
- 16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
- 17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작은 손수레.
- 19 일의 끝맺음.
- 21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을 도는 행성.
- 22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만남' '님 그림자'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긴 중견 여가수.
- 25 음식을 차려 놓는 사각형의 큰 상.
- 26 긴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음.
- 27 갑자기 들이쳐 공격함. 또는 그런 공격.
- 29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
- 30 잘게 다진 고기에 달걀, 두부 등을 섞고 둥글게 빚어서 기름에 지진 음식.
- 32 어지간하게 적당히. 거짓말 좀 〇〇해라.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www.maggun.com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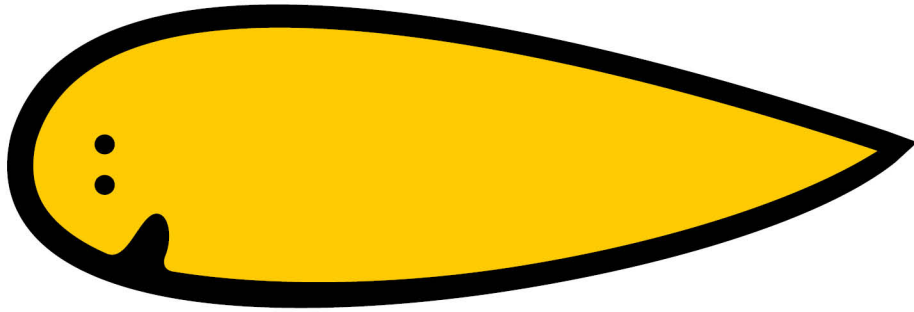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 063-445-1856 f. 063-911-1856 wh. icm23 (icm23)

박대는 군산의 대표특산품입니다.



군산박대

Gunsan Tongue Sole

군산박대향토사업단은

박대 그 맛이
진정 대박이구나.

군산특산물 중 으뜸인 박대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고, 최첨단 위생시설을 통해 가공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품으로 전국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산지역 특산품의 입지를 전국적으로 확고히 하여 군산 관광유치에도 기여하고, 영세한 어가와 생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군산박대향토사업단의 역할입니다. 박대산업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파워브랜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참여기업 및 판매처



T. 080-468-6000
<http://www.gjcrab.com>



T. 063-731-0110



T. 080-452-3333
<http://www.saranghae.org>



T. 063-731-1212



T. 063-445-6673

군산박대향토사업단
GUNSAN TONGUE SOLE PROMOTION AGENCY

군산
박대사업단
GUNSAN
TONGUE
SOLE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203호
T. 063-469-7535-6 F. 0303-3445-7536